

Korean News · Monthly Bulletin of Korean Association

# 한인뉴스

3 2017

VOL. 249  
haninnewsinni@gmail.com



재인도네시아한인회  
www.innekorean.or.id

**SAMSUNG**



# Galaxy A

## Smartphone with Attitude

IP68 DUST & WATER RESISTANT\*

HIGH RESOLUTION CAMERA 16 + 16MP\*\*

\* Dust and Water Resistant (IP68 rating) means that device is protected against entry of solid foreign objects and harmful ingress of water at up to 1.5 meters for up to 30 minutes, under certain defined test conditions. According to accredited test results, individual results may vary. Note: IP68 rating does not mean that device is waterproof.

\*\* Front & Rear Camera Specification on Samsung Galaxy A5 & A7 (2017)

Customer service: Toll Free 0800-112-8888, Telp (021) 5699-7777 (hunting)



## 스케일이 다른 편안함을 경험하세요

완벽한 휴식, 비즈니스와 품격이 공존하는 하늘 위 나만의 공간-  
180도 완전 평면 침대형 좌석으로 내 집같은 편안함은 물론, 40여편이 넘는 영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음악CD를 제공하는 최첨단 개인형 오디오 비디오 시스템으로  
또 다른 여행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대한항공과 함께 최상의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출발	도착	편명	출발시간	도착시간	요일	기종
자카르타	서울	KE628	2200	0700 <sup>+1</sup>	매일	77W
서울	자카르타	KE627	1535	2040	매일	77W

\*대한항공 발리-서울 노선 매일 운항

예약 및 기타 문의는 아래 대한항공 사무실로 연락 바랍니다.  
자카르타 지점 : 62-21-521-2180

www.koreanair.com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 PT. SEPULUH SUMBER ANUGERAH

EPC GENERAL CONTRACTOR



## 국제기업들이 인정하는 Quality & Safety System을 구축 고객 만족을 위한 최고의 품질

PT. Sepuluh Sumber Anugerah는 25년전 인도네시아에 자리잡은 한인 종합건설 회사로서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B2, Grade 7 건설회사로 인정받았습니다.

토목, 건축, 플랜트, 발전소, 인프라 등 건설 관련 모든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Kawasan Modern Industri - Cikande에 규모 5헥타르의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수행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시스템을 하도급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행합니다.

## 건설 전문가가 하면 다릅니다. 25년 전통 한인 종합건설회사 PT. SSA와 함께 하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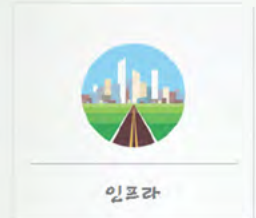
플랜트



토목 건축



발전소



인프라



고객 행복  
추구




신뢰 획득



가치 창출



경쟁력  
전문가

 [www.pt-ssa.co.id](http://www.pt-ssa.co.id)

HEAD OFFICE:  
Gedung EQUITY Tower 22A, SCBD Jakarta  
021-5140-2833

WORKSHOP:  
Jl. Raya Jakarta Serang, Kawasan Modern Industri Kav. 6  
0254-4029-47~49



### 사은 행사

200 만 루피아 이상 구매시:

**CarloRino**

상품권 증정 (3월 22일까지)

### IT'S PAY DAY

3월 23일~26일

**10% + 10%**

캐쉬백

추가 할인

### 스페셜 바자



영 코스메틱 페어  
(3월6일 ~ 12일) | GF  
브랜드: 라네즈, 에뛰드,  
토니모리, 닉스, VOV, 등

MAP 패션 브랜드 빅 세일  
(3월13일 ~ 26일) | GF  
브랜드: 라코스테, 노티카,  
투미, 탐삼, 도로시 퍼킨스, 등



**negen  
straatjes**

3월9일 ~ 12일

### 로컬 푸드 앤 패션 바자

다양한 패션 아이템과 재미있는  
이벤트를 즐겨보세요!

장소: MVG 주차장 (LG)



PT. SUNGLIM CHEMICAL



Ready to be your Best Partner  
The Highest Quality! Quick Response! Customize!



Solvent, Water base ink & Material



Spray & Painting



Injection Phylon



사무실 전경



제 1사업부



제 2 사업부



제 3 사업부



JL.Pemda Tigaraksa KM1,3 Kp. Bojong RT/RW:04/01 Bojong Cikupa Tangerang Banten

T.021.596.2372 F.021.596.1348 E.slcsMoh@yahoo.co.kr

# SAINT JAMES

## 〈CUBIK〉

원석을 커팅한 듯한 시크한 디자인이 돋보여  
한식,양식 어떤 요리를 올려도 큐빅만의 모던한 분위기를 연출해  
멋진 테이블 세팅이 가능합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어디든 잘 어울리는 블랙 & 화이트의 깔끔한 조화  
마치 보석같은 각의 디자인으로 화려함과 동시에 깔끔한 모던함까지..  
고급스러운 특별한 식사 분위기를 큐빅이 선사해드립니다.

평범한 사각 접시가 아닌 큐빅만의 특별한 모서리 각을 확인해 주세요.  
마치 수정과 같은 각의 디자인으로 보석을 닮은 그릇입니다.

약간의 특별함이 주는 아름다움. 당신의 테이블을 빛내 줄 것입니다.



“모던한 색감과 원석을 닮은 디자인이 돋보이는 테이블웨어”

블랙과 화이트의 모던함과 원석을 커팅한 듯한 과감한 형태의 디자인입니다.

심플하면서도 단조롭지 않은 스타일로 특별한 날, 더욱 특별하게 식탁을 책임질 제품입니다.



### SAINT JAMES Showroom

Pondok Indah Mall  
Jl.Metro Pondok Indah Blok 3B  
2 floor unit 219, Jakarta Selatan  
Tlp.021-75920615

Lotte Shopping Avenue  
Jl. Prof Dr Satrio Kav 3-5 2F floor  
unit 36 Karet Kunigan, Jakarta 12940  
Tlp.021-2988 9215

Lippo Mall Kemang  
Kemang Village L2-18 Lt2 36P  
Antasari, Jakarta  
Tlp.021-2952 8530

Lippo Mall Puri  
Jl. Puri Indah raya 11610  
Unit No. LG-90  
Tlp.021-2911 1197

고객문의 : 021-3190-6949

[www.saintjames.com](http://www.saintjames.com)

발행처 : 재인도네시아한인회  
발행인 : 양영연  
편집인 : 강희중  
논설위원 : 김문환  
편집장 : 홍석영  
편집위원 : 신돈철, 최인실, 황미리, 황윤홍  
취재기자 : 전민규  
전 화 : (021) 521-2515, 527-2054  
팩 스 : (021) 526-8444  
주 소 : Jl.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이메일 : haninnewsinni@gmail.com  
웹사이트 ( <http://www.innekorean.or.id> )  
에서 한인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 한인뉴스후원사로 초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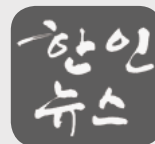
1996년 7월 15일 창간된 한인뉴스는 한인사회의 소식과 정보통으로 한 호의 결해도 없이 발행되어 왔습니다. 2012년 세계한인회보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계기로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확보하여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정론지로서의 위상을 갖추려합니다. 저희와 동참할 후원사를 초대하오니, 한인기업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 한인뉴스 편집부

전 화 : 021-521-2515

한인뉴스발행인 양영연 배상

군대를 가기 전  
세금을 내기 전  
우리 국가를 생각합니다.  
내게 뭘 해주었나..?  
내게 국가란 무엇인가?  
닥친 현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젠 헌법을 생각하게 합니다.  
상상의 여지가 없을 것 같았던 엄정한 법조문일지라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  
헌법의 여러 조항들이 국가 구성의 역사적배경으로 만들어졌다는 것과  
시대적 요구에 의해 개헌이 필요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경험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는 것 같습니다.



haninnewsinni@gmail.com

0818711246

편집장 홍석영



## 차례

- 10 편집위원 칼럼 / 편집위원 최인실
- 12 이선진 전대사의 대사일기
- 주요 프로젝트
- 24 신성철 칼럼
- 24 집중! 이 사람 / 땅그랑 반튼 한인회 오세명회장
- 30 JIS 소식 <정주은>
- 27 공감 <조현영>
- 34 집단방의 <배동선>
- 38 박상훈 칼럼
- 40 김용욱의 경제이야기
- 42 월간뉴스 브리핑 <자카르타경제신문>
- 46 석굴암 <월간 문화재사랑>
- 58 지상갤러리 <김은정>
- 50 행복에세이 <이동균>
- 52 이 표현이 맞나요? <최서혜>
- 56 생활 속 심리현상
- 58 인도네시아 민법 <이승민>
- 60 여행은 언제나 옳다 <이인상>
- 64 김종성의 생활법률
- 69 생활정보



고향의 3월

디자이너 : Diki Satria Nugraha [ @dqddoodle ]



## 취미는 떨림이고 설렘이 있는 희열이다

글: 신돈철 /편집위원

“암 부룬넨 포 템 토레..” 나의 노래소리를 가로 지르며 교실문이 드르륵 열렸다. 주변 선생님인 수학 선생님이 고개를 돌리면서 “합창반이냐?” 하고 물었다.

“아뇨... 미술반입니다~.” “응.. 그래?!...” 가우똥하시며 문을 닫으며 “그만 집에 가거라. 녀름 늦었다.” “네!~~~~.”

와우... 나보고 합창반이냐고 물으셨다. 잠시 기분이 좋아졌다. 내 짝꿍녀석이 합창반에 뽑혀 곧 있을 합창대회에서 노래할 곡을 연습하는 걸 어깨너머로 배웠다.

“성문앞 그늘 곁에 서있는 보리수... “우리말 가사로는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어인 독일어로 부른다. 어찌나 부러웠던지... 친구가 연습하는 합창실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복도에 앉아서 합창반 아이들이 부르는 소리를 속으로 따라하며 배웠다. 어느 날 늦게 남아 자습을 하다가 흥얼거린 ‘보리수’ 곡을 듣고 수학 선생님이 합창반으로 짐작하셨던 것 같다.

중학교때 오영칠 음악선생님의 닉네임이 007이었다. 첫 수업에서 이름소개를 그렇게 하셔서 한바탕 웃었는데 바로 합창반 단원을 뽑는다고 한명씩 일일이 일으켜 세우셨다.

그리고는 고난위도(ㄱ)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소리내 보라 하셨다. 그런데 조건이 ‘가성’ 이란다. 직접 시범을 보이시며 한명씩 오디션을 보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 난 너무도 떨려서 그만 끝까지 못해내고 “극..” 하는 소리와 함께 “앉아” 소리를 듣고 말았다. 이어서 테스트받은 내 짝꿍은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나는 그 당시 또래 아이보다 소위 변성기라는 것이 빨리 찾아왔다. 당연한 결과였다. 뒤늦게 ‘오스트리아 빈 소년합창단’ 같이 피꼬리 같은 소리를 낼 줄 아는 합창단원을 뽑는다는 것을 알고 많이 아쉬워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정착한지 20년이 되어간다. 본 직업인 미술지도로 가족을 위해 열심히 앞만보고 살아왔다. 어느날 후배가 운영하는 음악학원을 들렀다가 성악전공자 분을 소개받아 그 자리에서 중학교때 경험했던 간단한 오디션을 보게 되었다. 또 다시 떨림...ㅠ 세월이 얼마나 지났는데 이직도 떨어... 그런데 한가지 더해진 감정이 있었다. '설렘' 이다.

반세기 나이를 먹어 오랫동안 목청껏 소리내 보긴 처음이었는데 의외의 반응,목소리가 좋단다. 이걸 믿어 말어.. 후배가 선배한테 하는 기분좋은 말이려니 했다.

그 날 이후 난 어느새 이끌리듯 주기적인 발걸음을 음악학원으로 향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랐다. 하면 할수록 어려워지는 발성,호흡, 공명등의 생소한 단어들은 골프를 처음 배울때와 같은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집에서부터 유튜브를 보고 듣기 시작했다. 아내는 유튜브에 올려있는 성악곡을 몇시간씩 듣는 나의 모습을 보고 의아해 했다.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누구나 꼭해보고 싶은 자신만의 꿈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동안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또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고 싶은 일을 접어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아닌가. 마음 한켠에 보이지않는 열정을 묻어두고 현실이라는 울타리속에 갇혀 가정을 지켜야하고 남편으로서 그리고 아빠로서의 의무를 다해야했던 우리 남편.....^^

멋진 노래로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당신의 모습이 그래서 더 아름다워 보입니다.....^^

2013년 10월 30일에 아내가 쓴 메모 글이다. 생뚱스런 이 글을 오늘에서야 한인뉴스 편집자 글을 쓰다 노트북 메모 글에서 발견했다. 감동... 나를 그동안 소리없이 응원해 주었구나.. 혼자서하는 취미생활에 시간을 너무 많이 들이고 혼자만 하고 싶은거 다 한다고 투덜댄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간 20년 자카르타의 생활이 달달해 졌다. 힘이 났다.

고음 처리가 뽀족하고 감미롭게 들리는 플라시도 도밍고를 흉내내기도 했다가, 카프만의 굽직한 테너 소리가 맘에 들어 흉내를 내봤다가 바이브레이션이 너무 좋은 파바로티를 흉내내 봤다가..

나는 어느 쪽일까를 고민하면서 나의 성악 사랑은 그 좋아하던 골프를 점점 멀리하게 만들었다. 그 무렵 썸 자연스럽게 중년의 아버지가 되어서 중학교 시절 해보지 못했던

합창단의 멤버가 되는 행운을 얻게 되었다.합창의 미묘한 소리의 조화에서 나는 매번 희열을 느낀다. 내 소리가 튀어서 남과 조화를 이루지 못할까봐 조심스레 나를 내려놓는 배려심도 함께 키워지니 이 얼마나 정신건강에 좋은가? 합창연습이 있는 그 날이 설렘으로 기다려 지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았다.

좋은 취미활동이 나에게 이런 활력소를 가져다 주니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극 권유하는 습관이 생겼다. 어렸을적 해보고 싶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실천하지 못했던 그 무언가를 모든 사람들은 하나 정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이 악기이든 요리이든 그림이든 바리스타이든 무엇이든간에 조심스레 도전해 보길 바란다. 아니 적극적으로 도전해 보길 바란다.

2017년 올해 나에게서는 어깨에 지워진 짐이 많아진 듯 하다. 내 역량을 넘는 일이 많은 것 같다. 그럴수록 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에게 달콤한 '희열' 로 다가올 것을 믿는다.

바쁜 와중에 한가지라도 취미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은 치열하게 사는 나의 삶에 여유를 넣어주는 축복이다.

나는 오늘도 '설렘' 을 갖고 집을 나선다.





대사의 일기 제16화

# “경제에 매달리다” (주요 프로젝트)



지난 호에 이어

앞선 이야기는, 경제에 매달리면서 우선 인적 교류에 중점을 두었다는 내용이다. 한국 정부 인사들과 기업 CEO 들에게 인도네시아가 1998년 수하르트 퇴진 이후 계속되던 무질서와 혼란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또한, SBY대통령이 2004-9년 집권에 이어 2009-2014년 재집권하면 정치, 경제 환경이 한결 나아질 테니 지금이 인도네시아 진출의 好期라는 점을 각인시켜주고자 하였다.

다른 한편, 나는 몇 가지 프로젝트에 있어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고 싶었다. 나는 이임을 불과 4 개월 앞둔 2008.1.2. 대사관 시무식 때 “작년 한해는 양국 역사상 경제적 교류가 가장 활발했던 한 해였다. 그러나 금년도에 구체적 교류의 성과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지난 해 노력이 무산될 것이다.

따라서 금년을 인도네시아 기업진출의 내실화 및 과실을 거두는 해로 만들자” 고 하였다. 여전히 의욕에 넘쳐 있다. 주요 사업 중에서도 POSCO제철소, 조림 사업 및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주 문제는 마지막까지 나의 손을 떠나지 않았다.

## 1. POSCO 진출

2013.12.13 SBY대통령이 POSCO/Krakatau 제철소 용광로에 불을 지폈다. 이 제철소는 철광석에서 쇳물을 뽑아내는 一貫제철소(integrated steel mill)이다. POSCO가 해외에 여러 제철소를 설립하였지만 일관제철소는 최초이다. 수십억 불의 투자가 들어가는 만큼 그 규모 면에서, 또한 한국이 인도네시아 뿐 아니라 동남아 지역에서 기간산업(key industry)에 투자한 최초의 사업이다.

나는 한국 TV에서 이 뉴스를 보면서 2008.2.29 할림 공항에서 유습 칼라 부통령의 모습이 눈에 선하였다. 나는 현직 대사로서 이명박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후 귀국하는 칼라부통령을 할림 공항에서 맞이하였다. 칼라 부통령은 나를 보자 수행했던 인도네시아 산업 장관, 크라커타우 국영제철소 사장과 나를 귀빈실 구석으로 불러, “한국과 인도네시아 제철소 건설 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러한 당부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의 인도네시아 마지막 사업이 이제 시동을 거는구나하는 생각을 하였다. 나는 그 해 5월 귀국하였지만 그로부터 불과 5년 만에 대규모 제철소 건설이 완공되었다. POSCO는 인도, 베트남에 일관제철소 건설을 추진하였지만 인도네시아만 성공하였다. 그것도 시작에서 건설완료까지 불과 5년 밖에 걸리지 않았으니 사업 진행이 얼마나 순조롭고, 빠르게 진행되었는지 알 수 있다.

### 칼라 부통령,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

칼라 부통령의 한국 방문이 POSCO 진출 사업의 계기를 마련해 준 셈이다. 그런데 부통령의 한국 방문 문제는 아주 우연치 않게 제기되었다.

2007.12.27 외교단 만찬장. 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Imran Cotan, 주중국 대사 역임) 옆 자리에 앉게 되었다. 그는 적극적인 성격에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입후보, 노무현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문제,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 부지 문제 등 다른 관리들은 그 민감성 때문에 꺼리는 문제도 서슴없이 간여하여 매듭을 지어준 인물이다.

그와 함께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관한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가볍게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외국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한 예는 없는가하고 물었다. 훈련된 외교관 사이의 이러한 질문은 일종의 의사 타진(suggestion)일 수도 있다. 동 차관이 나의 질문에 일순 진지해지면서 대통령이 참석하는 경우 한국이 제공하는 예의(courtesy)의 수준을 묻는다. 나의 질문이 혹시 본부의 지시에 따라 던졌을 가능성을 두고 나의 의도를 타진하고자 하였다.

그렇다. 외국 정상의 한국 방문 문제, 특히 대통령 취임식 참석문제는 중대 사안인 만큼 당연히 본부의 지침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러나 본부 훈령 없이 그 이야기를 꺼낸 만큼 내가 오히려 당황스러웠다. 그러나 주재국 외교부 차관이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나도 일순 진지해졌다. 예의의 수준과 의전 절차는 앞으로 정부의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결성되면 구체화되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면 양국 우호 관계에 상징적인 이벤트가 되지 않겠느냐고 답변하였다.

나로서는 인도네시아 현직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면 한국 정부나 이명박 당선자 측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외교부 차관도 20여년 외교관 생활을 한 만큼 인도네시아 사정에 비추어서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라면 농담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 양국 정상의 교환 방문과 기업의 대규모 방문단 교환 방문 등 양국 관계가 급속히 가까워지고 있다. 무엇보다, SBY의 한국에 대한 관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외교부 차관이다. 다시 말하여, 그는 고위급 인사의 한국 대통령 취임식 참석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을 보인 것이리라.

나는 말을 꺼낸 김에 한 걸음 더 나갔다. 이명박 대통령이 기업인 출신으로 현대건설 재직 시 자카르타-보고르 고속도로 건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기도 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취임식을 계기로 이명박-SBY 체널이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SBY가 직접 참석하거나, 아니면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나의 생각을 말하였다. 동 차관에게 고위급 참석의 명분을 설명한 것이었다. 외교에는 사소한 문제라도 명분에 따라 비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자 동 차관은 내일 이 문제를 하산 장관에게 보고하고 대통령 궁에도 타진해보겠다고 하였다. 그 다음날 동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하산 외교부 장관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면서 한국 측 의전 수준을 파악하라고 지시하였다고 한다. 우연치 않게 제기된 문제가 중대 사안이 되고 말았다.



Jusuf Kalla

이제 서울을 밀어붙여야 할 차례이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과 담당국장에게 만약 외빈을 초청할 계획이 있다면 인도네시아 대통령을 동 명단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대통령보다 부통령이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인도네시아는 의전수준이 매우 높고 전통을 중시하는 나라이다.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아세안을 포함 다른 나라 대통령 취임식에 가본 예가 없음에 비추어 대통령보다 부통령이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물론, 부통령이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예도 그때까지 없었지만.

2008.2.1 외교부 차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칼라 부통령이 취임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알려왔다.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대통령과 러닝메이트로 국민 직접 선거에서 선출되고, 더구나 칼라 부통령은 의회 최대 정당인 골카르 당의 당수이다. 칼라 부통령의 정치적 위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부통령이 아니다. 그는 인도네시아 기업인 출신인 탓인지 경제 문제에 관한한 정부 내 영향력이 매우 컸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 특히 기업인 교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때문에, 2006년도 SBY 한국 방문이 여러 차례 연기되자(제3화) 주변에서 칼라 부통령을 우선 보내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하였으나 나는 이를 막았다. 정상 방문을 위하여 준비된 사업과 계획들이 부통령 방문을 통하여 개봉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경위로 한국 대통령 취임식에 이 나라 부통령이 처음 참석하였고,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에도 인도네시아 부통령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은 총리(급)을 파견하지 않고 국회의원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동남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아직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반증이다. 나와 인도네시아 외교부 차관 사이 가볍게 시작된 대화가 결과적으로 칼라 부통령의 취임식 참석, POSCO/크라카타우 제철소 설립문제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 POSCO 제철소 설립 구상

칼라 부통령의 한국 방문 성과를 무엇으로 할까를 고민하다가 승은호 코린도 그룹 회장과 상의하였다. 그의 첫 반응은 POSCO 제철소 진출이라고 조언하였다. POSCO가 인도네시아에 제철소를 세우겠다는 계획은 1998년 외환위기 전에 있었으며, POSCO, 크라카타우 국영제철, 코린도 3자가 계약서에 서명하고 자금 투입까지 하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때문에 모든 계획은 무효화되고 코린도는 투입액의 일부만 회수하였다고 한다. 승 회장은 인도네시아가 정치적으로 안정화되고 있어서 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본격 추진하려고 하며, 이와 관련 현재의 인도네시아 제철소의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내다보았다. 당시 크라카타우 제철소는 전기 고로로, 고철을 녹여서 제철을 주도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 규모나 품질에 있어서 POSCO와 같은 현대 시설과 방식이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며칠 후 인도네시아 경제인연합회 회장(APINDO) 소피안 와난디, 승은호 회장과 함께 조찬을 하면서 이 문제를 다시 협의하였다. 와난디 회장도 부통령 방문 시 양국 제철협력에 실마리를 푸는 좋은 기회라는 데 전적으로 동의하였다. 이 자리에서 부통령의 서울 체류 기간 중 비공식 일정도 협의되었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칼라 부통령과 와난디 회장은 오랜 친구로서 부통령의 해외순방에는 항상 와난디가 동행하였다.

이 조찬자리에서, 와난디 회장은 부통령에게 제철 사업의 필요성에 관하여 설명하기로 하였고, 나는 POSCO에게 연락하기로 각자 임무를 분담하였다. 승 회장은 부통령의 한국 체류 중 비공식

일정과 소요경비를 책임지기로 하였다. 승 회장, 와난디 회장 모두 오랫동안 한. 인도네시아 관계 발전을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역할을 해 왔다. 대사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들이었다.

나는 공식 채널을 통하여, 또한 개인 채널을 통하여 POSCO 에 연락을 취하였다. 그러나 예상치 않은 난관에 부딪혔다. POSCO 회장이 인도네시아 대표단과의 접촉을 일체 하지 말라고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당시 베트남에 일관 제철소 설립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추진하여 오던 중 혹시 오해를 일으킬지 모른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 대표단과 접촉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급해진 나는 당시 POSCO 제철부문 사장에게 편지를 보내는 한편, POSCO 회장실에 직접 전화하였다. 마침 회장이 부재중이라서 비서실장과 통화하였다. 인도네시아 부통령에게 POSCO 실무자라도 좋으니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제철사업이 장기 경제 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인도네시아 측은 이번 기회에 양국 간 제철협력에 관한 협의를 할 계획으로 산업부 장관, 크라커타운 사장을 부통령 일행에 이미 포함시켰으나 POSCO의 반응이 요지부동이다.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POSCO 회장이 마음을 바

꾸어 부통령과 조찬까지 하였다. 어떠한 경위로, 누가 POSCO 회장의 결심을 바꾸었는지 모르나, POSCO 회장의 개인 채널이 유효하게 작동하였다는 후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사보다 개인적인 맥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다. 내가 인도네시아를 떠난 지 2 개월 후 POSCO 와 크라커타운 사이 MOU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강경하던 POSCO가 수십억 불 규모의 투자 사업을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시키는 것도 이해가 안 되었다.

그 해 12월 크라커타운 사장이 MOU 협상 차 서울을 방문하여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관을 통하여 나와의 면담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미 정부를 떠난 사람이니 내가 할 일이 없다고 하면서 면담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사실 내가 대사로 있을 때 그와 자주 만났다. 크라커타운의 민영화 문제가 거론되고, 인도 TATA 제철소와의 합작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되었을 때부터 만났다. POSCO와의 합작 문제가 거론된 이후에는 더욱 자주 만났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인도네시아에 양질의 철광석이 얼마나 있는지를 물었더니 이 사장의 답변이 궁했다. 그래서 대사관 직원을 반동 공대 광물 연구소에 보내서 인도네시아 철광석 부존 자료를 돈을 주고 사왔다. 낮은 질의 철광석은 엄청나게 많으나 양질의 철광석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크라커타운 사장에게 그 자료를 제공하고 호주가 양질의 철광석을 보유하고 있으니 호주로부터 들여오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조언하였다. 즉, 호주의 세계적인 광업회사들이 인도네시아에 많은 탄광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인도네시아가 호주가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철광석을 우호적 가격으로 제공받도록 외교적으로 타협하라고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와의 만남은 자카르타를 떠나고, 외교부를 떠나면서 끝나야 한다. 그 이상의 간여는 私慾이자 월권이다.



## 박태준 자서전을 제공

내가 자카르타를 떠날 즈음 크라커타우 제철소의 신입 회장이 부임하였다. Taufic 신입 회장은 초대 부패방지위원장 (KPK) 5년 임기를 마치고 크라커타우 국영제철의 회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나와는 2006년부터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다(앞장 “노무현 대통령 방문” 참조), 초대 부패방지위원장으로 선임될 만큼 SBY의 신입이 두터운 사람이다. 본인 이야기에 의하면, KPK 임기 연장 제의가 있었으나 거절하였다고 한다. 제철소 설립은 엄청난 이권의 개입 여지가 있는 만큼 SBY가 믿을 만한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을 하였지만, 나로서는 그러한 사람이 양국 제철 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고대하였다.

나는 Taufic 회장과 5월말 귀국을 앞두고 골프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자주 만났다. 나는 제철 사업이 국가 경제 발전에 토대를 마련하는 기간산업이지만, 그 만큼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심지어 누구인가 자신의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고 하면서 절판된 박태준 씨의 자서전 영문판 2권을 어렵게 구했다. 한 권은 동 회장이 읽어 보고, 또 한 권은 SBY 대통령에게 전해 달라고 하였다. 박 태준 씨가 정치인들의 청탁과 부정부패를 막기 위하여 노력한 부분, 박 대통령을 찾아가서 호소한 부분 등은 earmark하여 특별히 읽어보도록 하였다. 이 사업의 성공은 대통령의 결단과 지지가 결정적이라고 하면서 SBY에게도 이 책을 전달하여 국가 지도자가 인식을 공유해야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 책이 SBY에게 전달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수십억 불 규모의 POSCO/크라커타우 일관 제철소 사업이 2008.2 칼라 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협의를 개시한 후 5년 만에 용광로에 불을 지켰으니 SBY 대통령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나는 공사 시작 초기 단계 POSCO 본사 직원들을 상대로 강의한 적이 있다. 나의 강의 요지는 제철소 건설을 상업적, 경제 이득 차원에서만 보지 말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고 감



나라사랑 온몸으로 실천한 철강왕

青巖 朴泰俊 회장  
청암 박태준

국가가 군인을 필요로 할 때 장교로 투신했고 개혁자를 찾을 때 산업역군이 되었다. 국가가 미래 비전을 요구할 때에는 정치인이 되었다. 조국에 봉사하는 것만이 박태준에게 주어진 지상명령이었다.

출판사: 이상현 사인 엔터테인먼트

동을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철소 설립 후속 사업으로 자동차, 건설, 선박 건조에 이르기까지 장기 산업화 청사진까지 제시하고, 인도네시아가 일본, 한국, 중국에 이어 동남아에서 산업화의 모델이 되도록 지원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마음을 사야 POSCO 사업이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 에필로그

Tauffic 크라커타우 회장은 POSCO 제철소 프로젝트와 연계하고 한국 조선업의 진출도 거론하였다. 그의 주장은, 수라바야 지역은 수심이 낮아서 큰 규모의 조선소 입지로는 적당치 않으나 POSCO 제철소 부지로 예상되는 Cilegon 지역은 대규모 조선소 입지에도 합당하다고 말하였다.

인도양을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수심이 매우 깊어서 별도의 준설이 필요 없다. 한국의 포항/울산 같이 Cilegon 지역에 제철소, 조선소를 포함하는 종합 산업 단지로 개발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NIKE-UNDER ARMOUR-NORTH FACE-ADIDAS**  
**글로벌 스포츠 · 고기능성 의류 강소기업 '호전실업'**



<Viet Thanh Garment>



<PT.KAHOINDAH CITRAGARMENT I >



<PT.KAHOINDAH CITRAGARMENT II >



지난 1985년 설립된 호전실업은 나이키, 언더아머, 노스페이스, 아디다스 등 15개 이상의 글로벌 탑 브랜드에 스포츠웨어, 고기능성웨어를 공급하고 있다. 1993년 리복을 시작으로 나이키(2003년), 노스페이스(2007년), 아디다스(2008년), 언더아머(2011년)에 차례로 공급, 현재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에 총 6개의 대규모 생산공장을 갖춘 스포츠웨어, 고기능성웨어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다.

인도네시아에는 PT. KAHOINDAH CITRAGARMENT, PT. YONGJIN JAVASUKA GARMENT 2개의 법인에 총 5개 전문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16,000여명의 숙련된 인력을 통해 글로벌 의류를 공급함으로써 글로벌 유명 브랜드로부터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PT. YONGJIN JAVASUKA I >



<PT. YONGJIN JAVASUKA II >



<PT. YONGJIN JAVASUKA III >



제98주년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

Dokdo Island of Korea

# 삼일절 기념 한마음 축제

## We are Korea's top Models

후원 : 한인회 및 단체 / 모델 : ICA(원생, 학부모)

일시 : 2017년 2월 25일 오후 3시 / 장소 : 롯데쇼핑(애비뉴 콘서트홀 4층)



## 제 98 주년 3.1절 기념 한마음 축제 “우리는 대한민국의 탑모델입니다”

98년 전 독립을 기정사실화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을 선포했던 그날의 태극기 축제가 2월25일 롯데쇼핑 애비뉴 아이스펠리스에서 펼쳐졌다.

한국자유총연맹 인도네시아지부(회장 배연자)는 주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재인도네시아 한인회후원으로 제 98주년 삼일절 기념 한마음 축제의 잔치를 마련하였다. 각계각층의 한인사회 주요인사와 한인동포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 학생들, 패션쇼에 참석하는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로 성황을 이루었다.

식전행사로 한바패 풍물팀과 인도네시아 태권

도시범단의 공연으로 생동감 넘치는 잔치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기념식에서 배연자 자총연니지부 회장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국가의 안녕과 발전에 기여하며 특히나 외국에서 민간 외교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살아야한다” 면서 우리 각자는 대한민국의 탑모델임을 잊지 말자고 강조했다.

조태영대사는 “이 날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나라가 존재해야하는 중요성을 우리가 고통 속에 체험한 만큼 지금은 국가의 힘을 기르는데 지혜를 모으고 토론할 때다” 라고 말했다.





한인회 양영연회장은 “삼일절은 그날의 유효함의 알리기 위해 굳이 의미가 아닌 날짜를 국경일의 명칭에 쓴 만큼 그날의 애국지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그 정신을 이어나가자” 고 말했다.

이어 UI대 PALAGITA 합창단의 독립군가 합창으로 본 공연의 막이 올랐다.

이의덕, 최숙진의 듀엣, 배애리 한국무용가의 유

관순열사를 연상케 하는 한국무용, 열정적인 강기만 교수의 색소폰 연주는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모든 참석인들은 무대에 펼쳐진 세계 지도에 대한민국의 역량이 뻗어나가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며 일본의 압제에 맞서 국권회복과 민족자존을 위해 싸웠던 그날의 정신을 다시금 되새겼다.





## 신한카드, '신한 하이캐쉬카드' 출시

신한카드, 해외 1호 신상품 콘셉트는 '한류' 신한카드, 新금융한류로 인도네시아 본격 영업  
 ◆ 신한인도파이낸스 합작사인 살림그룹 회장에게 1호 신용카드 'The I' 전달  
 ◆ 삼성, CJ, 롯데 등 현지 진출 기업 연계 카드 기반 마케팅 플랫폼 구축 첫 사례 주목

신한카드(사장 위성호)는 6일 저녁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현지에서 카드사업 런칭 행사를 개최했다. 또한, 현지 파트너인 살림그룹의 안토니 살림 회장에게 제1호 카드인 'The I' (VVIP를 위한 인피니트 등급 카드)를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는 위성호 사장과 조태영 주인도네시아 대사를 비롯한 300여 명의 국내외 인사가 참여했다.

신한카드의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 '신한인도파이낸스'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New Experience, New Value'로 설정했다. 현지 고객에 맞춘 서비스와 고객 편리성을 차별 포인트로 인도네시아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소개된 '신한 하이캐쉬 카드'는 포인트 서비스를 강점으로 한 상품으로 인도네시아 현지화와 한류 서비스를 통한 차별화를 동시에 꾀했다. 인도마켓(2만1천개 편의점), 인도그로시르(16개 대형마트), KFC(530점), 인도모빌(99개 자동차 판매/정비소) 등 살림그룹 계열사를 묶은 인도팩(Indo-Pack)과 삼성전자(40점), 롯데마트(16점), CGV(20점), 뚜레쥬르(24점), 11번

가, YES24, 교촌치킨(7점) 등 현지 진출 한국 기업을 묶은 케이팩(K-Pack) 이용 시 5% 적립을 제공한다. 또한, 현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인도네시아 고객들이 주로 신

용카드를 이용하는 업종(외식/병원/약국/여행사/호텔 등)에서 3% 적립을 제공한다.

신한카드는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1포인트=1루피아, 즉 포인트가 곧 현금이라는 새로운 카드 포인트 이용문화를 주도하겠다는 복안이다. 포인트의 캐시백, 연회비 결제는 물론,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사인 가루다 항공의 마일리지 전환 서비스 도입 등 포인트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또한, 신한 FAN 서비스 기반 현지 e커머스 시장 선점을 추진하고있다.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은 "해외에서 카드사가 직접 국내기업들과의 동반 마케팅 플랫폼을 구축한 첫 사례라는데 의의가 있으며,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된 경쟁력을 갖추어나갈 수 있도록 시너지 모델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제공: 신한카드)



# 코린도 장학재단 인도네시아대학교 학생에 장학증서 수여

코린도 장학재단(이사장 정무웅)은 지난 2월 16일 인도네시아 대학교 ( Universitas Indonesia) 에서 알프리다 에스더 (Alfrida Esther) 국제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네시아대학교 한국어과 3학년에 재학 중인 아울리아 사피라(Aulia Savira) 양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번에 연세대학교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수학하게 되는 아울리아 사피라 학생은 코린도장학재단에서 2003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장학제도로 금년에 15번째 선발된 학생이다.



코린도 장학재단은 왕복항공료와 수학기간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며 연세대학교로 부터는 등록금과 기숙사를 제공받게 된다.

아울리아 사피라 학생은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 코린도 그룹에 감사하며 많은 것을 보고 배워와서 보답하겠다” 고 소감을 전했다.

## 제2회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 성황리에 종료

지난 2월 25일에 자카르타에 위치한 보로부드루 호텔 테니스 코트에서 제2회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 수준에 따라 상급자 그룹인 마스터부와 중급자 그룹인 쉐린저부, 초급자부인 루키부로 나누어서 총 54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진행 되었다.

2011년이후 자카르타에서는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장배, 아라테오픈 등 한인테니스대회가 매년 꾸준히 2~3회 개최되었는데 제2회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는 2015년에 이어 이번이 2번째이다.

이번 대회를 개최한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장배 테니스대회를 주최한 정영규회장은 2015년에 발표한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의 소개와 더불어 테니스를 통한 해외 거주 한인간의 교류와 건강증진을 강조하며 인도네시아 거주하는 한인들의 테니스인구 저변확대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초대회장으로 수고한 전임 정성원 회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번 대회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이전의 대회보다 더욱 풍성했는데, 그 이유는 참가국가의 확대 연령층의 다양화, 그리고 가족팀의 참가등이다.

이번 대회에 3개 국가에서 참가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는 자카르타 한인테니스 동호회인 아라테, 아마르따뿌라, 인코 소속 선수들과 동호회비소속 개인참가자가 있었고 싱가포르에서는 태사자, 한국촌 소속 선수들이 참가했으며, 한국에서는 영클럽 소속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가 성인 대회이지만 최연소 참가 선수로 이 대회 참가를 위하여 싱가포르에서 온 루키부의 9살인 이 승군과 쉐린저부에 참가한 JIKS 10학년인 김 형준군은 아직 미성년자이다.

이번대회 최연장자는 62세인 정성원 전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장 이다.

이번 대회 우승은 마스터부 박상규(영클럽) 안혜중(영클럽) 선수가 쉐린저부는 박창규(인코/아라테) 장준성(인코/아라테) 선수가 루키부는 박중섭(아라테) 강신우(아라테) 선수가 하였다.

이번 대회는 재인니대한테니스협회 회장과 이사들의 철저히 준비된 진행으로 잘 마무리되었으며, 정영규 회장 내외가 세심한 부분까지 직접 챙기는 모습과 참가자들이 너나 할 것 없는 협조가 대회를 더욱 훌륭하게 만들었다.



## 문무대왕함, 자카르타 입항



한국형 구축함 문무대왕함(DDH-976)은 2월 16일 자카르타 탄중쁘리옥항에 입항하여 대사관, 한인회, 인도네시아 해군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2016년 8월 소말리아 아덴만으로 출항했던 청해부대 22진 문무대왕함은 2017년 2월까지 과병 임무를 수행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중 자카르타를 방문했다.

부대장 김기환 대령이 이끄는 문무대왕함은 지난 2009년 1진을 시작으로 올해 5번째 과병 임무를 수행하며 함 승조원을 비롯해 특수전 요원과 항공대, 해병대원 등 모두 300여 명이 편성되어 선박 호송과 해적 퇴치, 해양안보작전 참여 등 임무를 수행했다.

이 밖에도 연합전력 기회훈련 등 군사외교 활동과 기항지 교민 초청활동, 위문 봉사활동 등을 통



해 우호를 증진하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애국심과 자긍심을 심어주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 선박들을 해적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청해부대는 창설 뒤 지금까지 1만 3477척의 안전 항해를 지원했고 아덴만을 지나 는 우리 선박 471척에 대해 호송 작전을 펼쳤다.

# 서병수 부산시장, 재인니 한국신발기업 방문 및 인니신발협회 MOU체결



## 현지 앞선 신발제조 자동화공정 시찰 및 인니진출 한국기업 현장 목소리 청취

서병수 부산시장은 2월 12일부터 18일 일정의 아세안 신흥시장 개척 순방 중 16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ASEAN(아세안,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총장 면담,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 신발 자동화 공정 시찰, 현지 진출 한국신발기업 간담회, 인도네시아 신발협회와 MOU체결을 진행했다.

오전 일정으로 아세안 사무국에 방문한 서병수 부산시장은 레 르영 밉 (Le Luong MINH) 사무총장과 만나, 부산시와 아세안 지역의 기업간 교류 확대 등을 논의 했다.

다음 일정으로 해외 진출 신발 제조기업인 (주)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를 방문했다. 파크랜드 월드 인도네시아는 2005년 설립 이래 연 매출 4,000억원을 달성한 인도네시아의 대표적 한국 신발기업으로, 신만기 대표와 만나 현지 진출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 한 뒤, 최첨단 신발 제조 자동화 공정을 시찰 했다.

또한 현지 진출 신발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여, 부산시의 신발산업 재도약 및 해외 진출 신발기업

의 부산 내 채용치를 위한 첨단융합허브센터 건립, 신발 분야에 대한 R&D 설비 구축 등의 투자 현황을 설명 했으며, 기업 U턴시 장점 등에 대해 현지 진출 기업인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다음으로 자카르타 시내의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에서 (재)부산경제진흥원 신발산업진흥센터와 인도네시아 신발협회와의 MOU체결식에 참가했다. MOU는 양 국가 신발산업의 신발수출 촉진, 신발트렌드 및 기술 교류 확대, 부산국제신발전시회를 비롯한 전시회 참가 교류 확대를 위한 것이다.

서병수 시장은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한국간 현지 기업간, 현지기업·부산경제진흥원 간 총 2건의 MOU체결에도 참석한 뒤 당일 순방 일정을 종료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금번 인도네시아 순방은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및 협회와의 교류 확대를 통한 부산 기업 수출 확대 및 현지 진출 제조기업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한 U턴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것” 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 미디어코리아)

#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입니다”

글 : 신성철 데일리인도네시아 대표



“인도가 아니고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라는 부분이 같아 인도와 인도네시아를 구분 못하는 한국사람들이 꽤 있다. 동남아시아 대국인 인도네시아의 어원은 인도를 뜻하는 라틴어 ‘인두스’(Indus)와 섬을 뜻하는 그리스어 ‘네소스’(nesos)의 합성어이다. 즉 ‘인도 부근에 있는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라는 뜻이며, 서구 열강들이 아시아에서 치열하게 각축을 벌이던 18세기부터 불려졌다고 한다.

세계 최대 무슬림 인구 국가인 인도네시아의 관광 홍보 포스터에는 아름다운 모델이 두 손을 합장하고 허리를 숙이는 인도풍의 인사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 인도네시아에서는 힌두와 불교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국장(國章) 가루다(Garuda), 국시(國是) 판짜실라(Pancasila), 통치이념 비네카 텡갈 이카(Bhinneka Tunggal Ika), 보로부두르 불교사원과 빠람바난 힌두사원 등이 그것이다. 인도네시아어에 수르야(Surya, 태양), 쿠수마(Kusuma, 꽃), 아짜라(Acara, 행사), 바하기아(Bahagia, 행복), 찐다(Cinta, 사

랑), 다나(Dana, 자금) 등 많은 단어가 산스크리트어에서 차용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한꺼풀만 벗기면 인도가 보인다’라고 말한다.

인도와 인도네시아가 해양이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흔하다. 두 지역은 바다를 통해 2천년 전부터 문물을 공유했다. 상업과 항해술에 능한 고대의 인도인들은 동남아시아에 문물과 불교·힌두교를 전파했다. 이러한 인도인들의 활동 덕택으로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지역에 불교와 힌두교 왕국이 융성했다.

인도네시아 군도는 기원후 1세기부터 인도와 교역을 해왔다. 7세기부터 인도와 아랍 상인들은 조선기술의 발달로 ‘다우’(Dhow)라고 불리는 범선을 이용해 무역풍(계절풍)을 타고 인도양을 가로질러 이전보다 더 많은 화물과 승객을 싣고 인도네시아 군도를 드나들었다. 동남아 지역 군주들은 외국 상인이 드나드는 곳인 수마트라 섬의 빨렘방과 말레이 반도의 말라카 등지에 항구도시를 건설하고 인도와 활발하게 교역했다.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인도의 정치제도, 기술, 종교와 문화·예술이 전해졌고, 이는 인도네시아 군도에서 고대국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수마트라섬 팔렘방을 중심으로 말라카 해협을 해상권을 장악한 스리위자야 불교왕국은 7세기부터 12세기까지 인도와 인도네시아 군도 각지에서 내항한 무역선간 중계무역을 주도하면서 해상제국으로 성장했다.

중국 문명을 이해하려면 한자를 알아야 했던 것처럼 인도 문명을 이해하려면 산스크리트어를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고대 인도 문학과 불경을 기록한 인도의 상류층의 언어였던 산스크리트어와 힌두 문명은 인도네시아 엘리트 계층을 중심으로 전승됐다.

결혼, 임신, 출산, 제사 등 자바 전통의식에는 힌두와 불교 문화가 깔려있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한동안 영혼이 이승에 머문다는 믿음이 있어 장례를 치르고 7일, 40일, 100일, 1,000일째가 될 때 제사를 지낸다. 또 결혼, 임신, 출산 후에도 이슬람 의식에는 없는 힌두 문화에서 유래한 의식이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와 마하바라타는 자바 사람들의 고전으로 종교적인 가르침뿐만 아니라 문자와 언어, 종교와 정치제도 등을 전하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전통적인 가르침에 따라 일부 자바인들은 무슬림이면서도 전생과 이승 그리고 다음 생의 운회를 믿는 힌두의 세계관을 간직하고 있다. 자바인이 투쟁적이지 않고 현실에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유로, 현세는 바꿀 수 없고 이번 생애에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을 다하는 힌두적 세계관을 꼽는 의견도 있다.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다른 나라의 무슬림들보다 포용력이 크다. 인도네시아인들은 인도문화를 수용했지만 인도문화에 온전히 매몰되지 않았다. 통치이념으로써 힌두교와 불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반면, 전통문화와 충돌하지 않도록 선별적으로 수용해 신분제도인 카스트 등은 미약하다.

인도네시아에 살면 살수록 인도네시아를 점점 더 모르겠다고 흔히 말한다. 인도네시아는 겉보기에 이슬람국가로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힌두와 불교 문화가 바탕에 깔려있다. 섬의 수만큼 다양한 문화를 품은 인도네시아를 한마디로 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집중! 이 사람

# "땅그랑 반튼, 우리는 하나!" 땅그랑 반튼 한인회 오세명회장



한인뉴스 편집팀은 2월22일 PT. SUNG LIM CHEMICAL(땅그랑 반튼 소재)을 방문하여 오세명회장을 취재하였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빈틈을 주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 1. 땅그랑 반튼 한인회 소개 및 역사

땅그랑 반튼에는 약 1만여명의 우리 교민이 1,000여개의 기업을 이끌어가고 있으며, 50만명이 넘는 고용인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민들의 구슬땀으로 일궈낸 땅그랑 반튼 경제시장의 중심엔 교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인 땅그랑 반튼 한인회가 있습니다.

2009년 제 1기 이세호 회장을 필두로 출범한 땅그랑 반튼 한인회는 2013년 제 2기 하연수 회장을 거쳐, 2016년 제 3기 오세명 회장에 접어들어 내내 10년차를 맞이하게 됩니다.

땅그랑 반튼 지역에 한인들이 진출, 거주하기 시작한지는 대략 40여년 전 부터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거주하며 인도네시아와 상호 협력하여 하나둘 자리잡기 시작한 기업들이 이제는 약 1,000개가 넘습니

다. 신발, 봉제, 가전 등을 비롯한 유수의 기업들이 이곳에서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며, 불이 꺼지지 않는 한인기업의 신화를 다시 쓰고 있습니다.

## 2. 한인회의 주요활동내역

땅그랑 반튼 한인회의 모든 활동은 우리 교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한인기업들의 관심어린 후원 및 기부로 마련된 기금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능동적인 성격의 활발한 활동은 모두가 하나라는 땅그랑 교민사회의 슬로건을 대변하여 입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 라는 슬로건은 우리교민에 국한된 것이 아닌 인도네시아 사람들과의 관계로도 확장되어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연결하는 중심적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와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인도네시아 불우가정을 돕기 위한 행사로 약 100여명의 어린이들에게 무료 할례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엔 대전광역시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땅그랑 시에 위치한 국가과학 연구단지에서 실시된 대전광역시 주체 세계과학도시 연합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많은 길잡이 역할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인의 밤”,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날 및 어버이날 행사”, “한국기업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재무회계 교육” 등 땅그랑 반톤 한인회가 주최하는 수많은 연례행사 외에도 문화원 운영을 통해 “난타”, “미술전”, “합창단”, “기타반” 및 “켈트반”, “십자수”, 영어 및 인니어 강좌”, “도서관 운영”에 이르기 까지 땅그랑 반톤의 교민사회는 모두가 합심하여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고, 고국에 대한 애환과 향수를 서로가 어루만지고 달래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3. 인도네시아 정착하게 된 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스토리

94년 처음 발을 딛고, 생소한 이국 땅에서의 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점차,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더욱 매력을 갖게 되었고 기회가 많은 이 땅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 같다는 기대와 설렘으로 독립을 꿈꿨습니다. 당시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으나, 97년 창업과 동시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데리고 오면서 새로운 인니 인생을 시작하였고 PT. SUNGLIM CHEMICAL은 2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IMF와 폭동등을 거치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곳이 저의 삶의 터전임을 잊지 않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버텨왔습니다. 가족들의 지지와 응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 4. 회사의 생산품 소개 및 매출규모, 회사경영 노하우 등

성림화학은 한국에 본사를 두고, 중국,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법인을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인도네시아 법인은 제 1사업은 주로 NIKE, ADIDAS, NEW BALANCE, ASICS, REEBOK, ECCO 등 유수의 기업들과의 파트너 쉽을 체결하여 신발용 유성/수성 잉크 및 가죽용 토너, 각종 용제 및 부자재 등을 유통하고 있습니다. 제 2 사업으로 아웃솔 및 미드솔 TPU/AIR BAG 스프레이 및 페인팅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림화학만의 특징이라면 20년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에 대한 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문제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부합되는 제품 생산 및 개발에 총력을 기울여 맞춤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5. 올해 전망 및 계획

20년 경영과 기술 노하우를 2세에게 전수하는 중입니다. 또한 제 3 신규 사업으로 INJECTION PHYLON 을 활용한 샌들(sandal) 생산 및 자체 브랜드 런칭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 6. 오세명 회장님의 인생철학과 한인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제 인생의 철학은 매사에 최선의 노력과 정직함입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더군요 저보고 농담을 너무 모른다고.. (하하) 저는 부끄럽게도 농담을 잘 구분을 못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이 싫어할 수 있겠지요. 자식들과 대화하려고 농담을 공부해야 하는 정도입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제가 감히 한인 여러분께 어떠한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잠시 망설여집니다.. 그 저 이국 땅에서 오랜 시간 뿌리를 내리며 살아온 저로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밥을 먹을때도 잠을 잘때도 일을 할때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만큼은 최선을 다하십시오. 열심히 뛰는 사람에게는 양식이 주어집니다. 한인 여러분의 어려운 고충을 돕고자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7. 앞으로의 계획

현재 자식들이 함께 경영에 참여하여 2세 경영을 준비 중입니다. 땅그랑 한인회장의 직책을 맡을 수 있었던 부분이 자식들의 도움이었습니다. 10년을 바라보던 인도네시아의 생활이 20년이 넘었고 또 다시 30년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자식들이 탄탄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돕고 땅그랑 한인 여러분의 고충을 함께 해결해나가고 든든한 버팀목으로 교민들이 기댈 수 있는 땅그랑 한인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땅그랑반튼 한인회 소개

### 1. 땅그랑반튼한인회 연혁

2010년 1월 땅그랑반튼한인회 창립 제1기 (이세호 회장 취임)

2013년 1월 땅그랑반튼한인회 제2기 발족 (하연수 회장 취임)

2016년 1월 땅그랑반튼한인회 제3기 발족 (오세명 회장 취임)

### 2. 땅그랑반튼한인회 주요사업

- 1) 한국교민 정착 안내 역할 및 권익 보호 지원
- 2) 매년 5월 가정의날 행사 - 다문화가정 어린이날 행사,  
65세 어르신을 모시는 어버이날 행사
- 3)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 미래장학회 장학재단을 중심으로 땅그랑 지역  
다문화가정에 장학금 지급 및 생필품 지원
- 4) SUNATAN MASSAL - 2년에 한 번 갖는 행사로서 땅그랑 지역 지역주민과 한인들의 소통과  
나눔의 자리
- 5) 회계교육 세미나 - 매년 시행되며 땅그랑 지역 한국기업 현지 직원을 대상으로 한 무료 교육

6) 땅그랑한인회 문화원 개원 - 2013년 땅그랑문화원 개원을 외국생활에 무료한 한인들의 대상으로 영어, 인니어, 미술회화, 손자수, 난타, 아리아, 기타강좌 등 여러 다양한 강좌를 개설 하였으며 강사님들의 재능기부로 진행

☆월요일: 오전-영어 Topic Conversation 강좌-나연파딜라 선생님

☆화요일: 미술회화 강좌-김선옥 선생님

2015년 12월 제1회 자화자찬 미술 전시회 (아마르따뿌라 B동 로비)

2016년 2월 제1회 나들이전 미술 전시회 (찌까랑 자바팔레스 호텔)

2016년 12월 제2회 자화자찬 미술 전시회 (아마르따뿌라)

2016년 12월 제2회 나들이전 미술 전시회 (찌까랑 자바팔레스 호텔)

☆수요일: 손자수 강좌-박미경 선생님

☆목요일: 난타아리아 강좌-원순옥 선생님

☆금요일: 오전-기타 강좌-전준구 선생님

오후-영어회화 기초강좌-나연파딜라 선생님

7) 한인의 밤 - 땅그랑 한인들이 한마음, 한 뜻으로 모여 결속을 다지는 행사

### 3. 땅그랑반트한인회 사무실 이전 안내

땅그랑반트한인회 사무실은 기존 아마르따뿌라에서 **Pinangsia Office Park Blok H-28**로 이전.

피낭시아는 사방 2-3Km내 1,500여명이 사는 한인 동포 밀집 주거지역으로 왕래, 방문이 편리 상근 사무국장 (허미숙 사무국장)이 근무, 업무연락, 자원봉사단 모임, 청년회, 한인회 본 업무를 추진

### 4 운영자금 조달방법

지역 한인업체들의 후원 및 임원들의 후원금으로 운영





(학생기자 JIS 정주은)

다가오는 3월에 JIS는 IASAS Cultural Convention Music을 주최한다. 다소 생소하게 들리는 IASAS는 Interscholaristic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Schools의 약자로 JIS를 포함한 방콕 국제학교, 말레이시아 국제학교, 필리핀 국제학교, 싱가포르 국제학교, 그리고 타이완 국제학교, 총 여섯 국가의 국제학교들 간의 연합 협회이다. 연고전과 같은 다양한 학교들간의 연맹이라고 쉽게 이해하면 되겠다. 이 협회를 통해 각 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은 스포츠 경기나 문화 교류 그리고 모의 토론을 상당히 전문적인 수준으로 경험한다. 스포츠는 세 시즌으로 나뉘어있고 10주 간격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문화 교류와 토론 또한 시즌제로 나뉘어있는데 매 시즌마다 각 학교가 주최하는 행사가 다르다. 지난 1월에는 JIS가 스포츠 시즌 2 럭비 경기를 주최했고 3월에는 음악 부분을 다가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주최할 예정이다. 음악 부분은 총 네 가지로, 합창, 오케스트라와 현악기, 그리고 피아노가 있다. 학교 홈페이지 별도의 IASAS 홈페이지에 스케줄이 나와 있어 학생들은 수업이 없는 자율 학습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공연을 자율적으로 관람할 수 있다. 그리고 가끔은 몇몇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 시간을 주기도 한다. 물론, 모의고사를 앞둔 12학년 학생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하늘의 별 따기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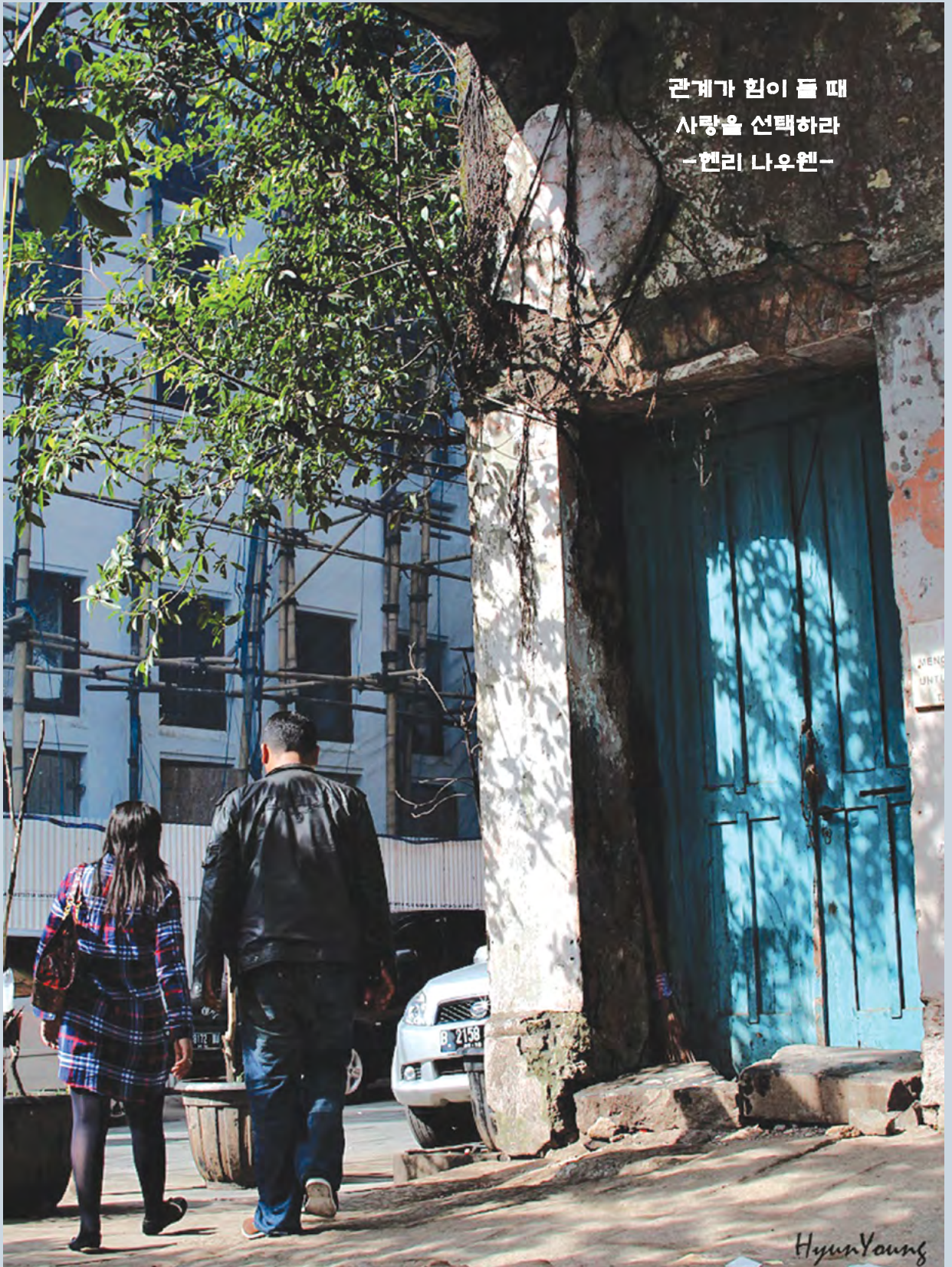
JIS 재학생 Alyssa Maxine Versoza 작품

그리고 IASAS 대표로 선발된 학생들은 의무적으로 상대 학교 학생들을 집으로 초대한다. 또한, IASAS 대표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원한다면 다른 학생들도 자발적으로 타학교 학생들을 초대할 수 있기도 한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새로운 친분을 쌓기도 하고 합숙 생활을 경험하기도 한다. 함께 방을 쓰고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이 다소 어렵고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오랜만에 엠티하는 기분도 들고 이만큼 재밌는것도 없다고 한다.

IASAS를 통해 학생들은 스포츠 정신과 문화와 예술 교류 그리고 국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토론을 하는 방법을 배운다. 이는 공부에 지친 학생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불어주는 계기가 되고 학생들이 문화 지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스포츠나 예술분야를 진로로 정한 학생들에게는 이에 필요한 전문적인 배움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IASAS는 학생들이 국제화에 걸맞는 인재가 될 수 있게 해주는 인큐베이터의 역할을 한다.



관계가 힘이 들 때  
사랑을 선택하라  
-헨리 나우웬-



*HyunYoung*

@Kota Jakarta

©2016, Cho Hyun Young ( ajuma86@hotmail.com)

# KOICA, 인도네시아 IT행정역량 강화사업(2013-2017/370만불) 현지연수 최종 성과공유 워크숍 개최

우리나라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인식)은 2월 21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인도네시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1,5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자정부 및 IT교육을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인도네시아 IT 행정역량 강화사업”의 현지연수 최종 성과공유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오기훈 KOICA 인도네시아 사무소장 및 정보통신부 바수키 차관보를 비롯, 국가개발계획부(수원총괄기관), 국가행정원 및 연수 참가 공무원 등 관계자 15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 속에서 진행되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그동안 정부 행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러한 스마트 정부 구현을 위한 기반을 공무원의 IT활용 역량강화로 보고, 중앙 및 지방부처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였지만, 분권화된 부처 체계와 관련 예산 및 인력 부족으로 중앙부처 주도의 표준화된 교육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동 사업의 현지연수 성과를 통해 정보통신부 소속 BPPTIK는 2015년 12월 국가행정원의 인증을 받아 인도네시아 최초의 공식 공무원 대상 IT 교육센터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동 센터에 대한 예산규제조항(PNBP)도 풀려 민간 대상 유상교육도 가능해져 사업 종료 이후에도 자체적인 운영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동 현지연수의 성과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정보통신부 주도로 동티모르 IT담당 공무원 30명을 초청, BPPTIK센터에서 교육하는 인도네시아-동티모르 남남협력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일방향적 수혜에서 벗어나 인도네시아가 한국 정부와의 협력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동남아시아 지역 내 IT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출발점이 되었다. 금번 워크숍은 이러한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관계기관들과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센터 운영 및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바수키 유수프 이스칸다르(Basuki Yusuf Iskandar) 정보통신부(KOMINFO) 차관보는 이에 화답하여 동 사업의 성과에 사의를 표하고, 향후 지속적인 인력 및 예산 확보를 통해 BPPTIK 센터를 활용하고, 육성해 나갈 계획을 밝혔다.





# KOICA,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구축사업(2014-2017/500만불) 완료 보고회 개최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사장 김인식)은 2월 22일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서 보안 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를 시범 구축하는 “인도네시아 전자정부 추진을 위한 보안긴급대응 및 국가인증체계 구축사업”의 완료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인도네시아는 ICT 서비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2020년까지 아시아 3위 (1.3천억 불)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형성될 전망이다, 최근 온라인상 사기, 증오범죄, 음란물 유포 등 사이버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가차원에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중이다. 그러나, 정부와 민간 간 발전 속도의 차이, 공공부문 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부족 등으로 중앙부처 주도의 표준화된 사이버보안 대응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KOICA는 2014년부터 정보통신부 주도로 점진적으로 타 부처 및 민간 기관으로 확산 가능한 보안긴급대응(SER) 및 국가인증체계(PKI) 시범시스템을 구축하고, 액션플랜 수립, 전문 인력 양성을 진행해오고 있다.

특히, 동 사업은 앞서 추진된 ”인도네시아 ICT 보안연구개발센터 구축사업 (2011-2014/550만불)”을 통해 양성한 반등공과대학교 사이버보안분야 현지 전문가를 활용하여 현지 수요 맞춤형으로 공개키 기반의 정보 암호화 및 전자서명을 통한 문서보안 인증체계(PKI)와 사이버범죄를 초기에 발견하여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SER) 시범적으로 구축하여,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인프라 기반 구축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사업성과물을 기초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사이버보안청(Cyber Security Agency)을 설립하고, 보다 체계적인 사이버범죄 대응 및 보안강화 체계를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다. 금번 워크숍은 이러한 사업성과를 최종 점검하고, 관계기관들과 사업 종료 이후 지속적인 시스템 관리와 활용, 운영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KOICA는 이번 프로젝트 완료보고회에서 논의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인도네시아와의 사이버보안 분야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 집단빙의II (끄수루반 마쌀 / Kesurupan Massal)

지난호에 이어

**물**론 의학적으로는 빙의현상을 귀신이 개입된 현상이 아니라 해리성 다중인격장애로 규정합니다. 기억, 인지력, 정체성, 감수성등이 붕괴 또는 손상되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행동하는 상태라는 거죠. 뭔가 감당하기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것을 무의식의 세계로 밀어내려 하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내재된 다른 인격을 깨워 발동시키는 방아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빙의현상은 항상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발현됩니다. 예를 들면 국가승급시험에 떨어진 고등학생이나 가장 슬픈 기억을 끄집어내 막 토로한 여중생에게서 발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슬픈 기억이 촉매가 되어 무의식 속의 다른 인격을 깨우게 되고 급기야 그 학생이 귀신들린 듯한 행동을 하게 만든다는 것. 이것이 빙의현상에 대한 정신의학적 설명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학적으로 분석되고 설명된다고 해서 빙의현상을 현대의학이 충분히 치료하고 감당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빙의현상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증상을 보이자마자 퇴마사들을 찾아간 것은 아니었어요. 가능한 모든 치료법을 백방으로 사용해도 소용이 없자 최후의 선택으로서 신과 종교에게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했던 것입니다. 한국의 경우엔 신병을 내린 몸주의 의지에 굴복해 마침내 손을 들고 신내림을 받기도 하는 거고요.

귀신이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빙의에 잘 걸리는 사람들의 유형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요약하기도 하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여자들이 곧잘 집단빙의 되는 것도 제법 설명되고 과학적 견해와도 일부 맥락이 닿는 부분이 엿보입니다.

1. 멍 때리는 사람
2. 육체적으로 건강치 못한 사람
3. (여자의 경우) 경건치 못한 상태이거나 생리 중인 사람 -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되지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설명.
4. 빙의현상을 이미 경험해 본 사람 - 빙의 기경험자는 첫 빙의 당시 영적 방어막이 한 번 파괴된 바 있는 셈이므로 초자연적 존재가 또 다시 침범해 들어올 방어막의 틈새가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설명.
5. 간질이나 공포증 등을 가진 특정 환자

난 개인적으로 1번에 눈이 갑니다. 멍 때리는 사람. 실제로 2번부터 5번까지의 조건들도 결과적으로는 1번에 귀결되기 쉽습니다.

멍 때리는 여성들의 모습은 한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은 남성들에게도 간혹 발견됩니다. 물론 집단빙의상황에서 멍 때리는 사람들에게엔 무조건 빙의가 전염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멍 때림’ 에도 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사람이 멍 때린다는 것, 낮을 놓는다는 것은 대개의 경우 머릿속이 진공상태가 되어 아무 상념도 없는 백짓장 같은 상태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념에 깊이 집중해 주변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무아의 경지에 빠지는 것이기 쉽습니다. ‘멍때림’ 을 너무 미화하는 측면이 없지 않지만 한국인의 멍때림은 그래서 오히려 고도의 집중상태이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로 돌아오는 것이 좀 어렵기도 합니다. 마치 다른 생각에 골몰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지금 자신이 어느 도로를 달리고 있는지, 어디를 가려고 달리고 있는지를 깜빡 까먹고 화들짝 놀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인들의 ‘멍때림’ 은 좀 다릅니다. 인도네시아어로는 이런 상태를 한 단어로 병용(bengong)이라 표현합니다. 병용상태로 들어가는 첫 단계는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사념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나 그러다가 어느 한 가지에 꽂혀 집중하면서 몰아의 경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다 많은 사념의 물결이 밀려

들면서 각각의 사념들은 점점 모래알처럼 더욱 작게, 더욱 잘게 분화해 마침내 새하얀 순결의 세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손과 발은 미성박음질을 하거나, 헬스장에서 트레이드밀을 뛰고 있거나, 턱을 편 우아한 자세로 강사의 열띤 강의를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머리 속은 그야말로 아무 생각도 없는 무념무상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가장 부주의하고 가장 무기력하고 가장 무방비한 상태에 돌입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겪게 되는 많은 현지인들, 특히 여성들이 쉽게 병용상태에 빠지는 것에 대해 다른 견해들이나 높은 수준의 학술적 연구성과도 있을지도 모르나 난 개인적으로 현지 도시빈민들 상당수가 유아시절부터 몸에 밴 후천적 만성 두뇌피로때문일 것이라는 점에 무게를 둡니다. 젖을 떼고 말을 시작하고 익숙하게 걷게 될 즈음 빈민촌 뒷골목 아이들은 다른 미취학아동들과 휩쓸려 놀면서 그 이전엔 하루의 반 이상이던 취침시간이 획기적으로 감소합니다. 사실상 낮잠을 전혀 자지 않게 되는 것이죠. 더욱이 엄마에 대한 강력한 의존관계가 구축되면서, 집이나 길거리에서 빈둥거리거나 도박이나 하러 다니는 아버지 대신 소고백화점이나 패밀리가라오케 같은 직장이나 남의 집살이 허드렛일로 돈 벌러 나간 엄마를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애타게 기다리곤 합니다. 성인들도 하루 8시간은 자야 할 터에 도시빈민층의 유아들은 그 이하의 시간을 자게 되곤 하는데 절대적 수면부족에 시달린 유아들의 두뇌는 그 나이에 걸맞는 정상적 발달을 하지 못하기 쉽습니다. 아이들은 자는 동안 키도 크고 두뇌도 성장하는 것인데 그럴 시간이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인들은 도시인들도 대부분 키가 작고 빈민층 아이들 중엔 과잉행동장애(ADHD) 증상을 보이는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엄마들이 백하면 아이가 아프다며 직장을 빠지는 상투적 이유의 저변에도 유아들의 절대적 수면부족으로부터 파생된 많은 문제들이 숨어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도심 고층빌딩에서 일하는 영어 유창한 고학력 직원들이나 중요한 미팅에서 만나게 되는 고위

관료나 상류층 거래선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애  
기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한줌도 되지 않는 그들  
의 육아지식이나 영양상태는 한국 평균보다 나으  
면 나았지 못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연  
하게도 그들은 생산현장이나 학교에서 집단병의  
현상으로 쓰러져 스와힐리어나 티벳어를 중얼거  
리는 일도 절대 없습니다.

그런 유아시절을 보낸 빈민층의 자녀들은 중고교  
시절, 더 나아가 직장생활을 시작할 즈음엔 이미  
꽤 심각한 병용상태, 멍때림 상태를 보이곤 합니  
다. 그래서 한국에선 거의 발견하기 힘든 ‘최면  
술사기’ 라는 것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멍때리는 상대방에게 접근한 어떤 사람이  
갑작스러운 손짓, 소리, 행동 또는 접촉만으로 간  
단히 최면상태에 빠뜨린 후 금품을 갈취하는 범죄  
입니다. 물론 자기가 횡령하거나 분실하고서 최  
면술강도 핑계를 대는 사례도 없지 않지만 그건  
그만큼 최면술사기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Lancarkan penipuan lewat SMS dan telepon,  
pelaku pakai hipnotis

최면술사 범인, 문자와 전화 통해 효율적인 사기  
행각 2015. 3. 15.

Merdeka.com - (전략) 최면술이란 인간의 각성단  
계를 변화시켜 뇌파의 베타파를 알파파와 델타파로  
끌어내릴 정도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예술적 단계의  
소통방식이다. UIN대학의 사회학자 무스니는 많은  
사람들이 최면술을 행하는 이유로서 그만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또한 최면술은 원하는 바  
를 얻는 하나의 방편으로도 사용된다. (중략)

무스니는 최면술을 사용한 사기행각에 대한 이야  
기도 덧붙였다. 최면술사 범인은 피해자의 눈을  
응시하거나 신체적 접촉을 통해 뭔가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면술을 시전한다. 피해자가 최면술에  
걸리면 그 다음은 모든 게 만사형통이다. 그래서  
최면술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데 모르는  
사람을 만날 경우 금방 친해지지 말고 신체접촉이  
나 눈을 마주치는 것을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무

스니는 말한다. (후략)

(출처 - <http://www.merdeka.com/peristiwa/lancarkan-penipuan-lewat-sms-dan-telepon-pelaku-pakai-hipnotis.html>)

이런 최면술 사기는 주로 50-60대의 여성을 대  
상으로 하지만 젊은 여성이나 현지에서 흔히 ‘반  
찌’ (banci)라고 부르는 여성성향 남성동성애자  
들의 피해사례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  
다. 월급봉투나 금반지, 차량 열쇠 같은 것을 자발  
적으로 최면술사에게 넘겨 주는가 하면 심지어 현  
금출납기에서 스스로 돈을 빼서 갖다준 후 나중에  
제정신을 차리고 울고불며 자책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은 특별히 최면술에  
잘 걸리는 민족일까요? 난 이 역시 유아시기 절대  
적 수면부족으로 인한 모종의 두뇌기능장애 때문  
이라 생각하는 편입니다. 최면술의 ‘암시’ 에 매  
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 ‘병용’ 상태가 현지 인  
력집약적 공장들과 각급학교에서 겪고 있는 집단  
병의현상 원인의 한 축이 아닐까 합니다.

하지만 집단병의를 귀신의 장난이라고 굳게 믿는  
사람들에겐 어떤 논리적, 과학적 설명도 잘 통하  
지 않습니다. 병의가 진, 즉 귀신이 사람의 몸에  
깃들어 발현되는 현상이라고 전제하는 무슬림들  
의 집단병의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평소 종교적으  
로 건강하고 경건한 행동을 통해 진의 간섭이나  
병의를 예방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은 경우 열심히  
기도에 정진해 알라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진 = djin(n): 정령

인도네시아에서 구할 수 있는 꼬수루뽀와 관련된 대부분의 자료들이 이슬람의 시각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이어서 뱀파이어를 만나면 심장에 커다란 나무썰기를 박아야 하고 쭈비는 머리를 썩어야만 죽는다는 식의 지극히 상투적인 이슬람식 조언과 코란의 가르침들이어서 좀 식상한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강력한 디테일을 가진 몇몇 흥미있는 내용들도 찾아 볼 수 있었습니다.

#### FAKTOR PENYEBAB KESURUPAN

Ada enam penyebab kerasukan:

빙의현상의 여섯 가지 발현원인들

Pertama: Kerasukan yang Disebabkan oleh Permusuhan

첫 번째 : 인간과 악마 사이의 적대적 대립관계가 초래한 빙의현상 - 증상으로는 밤마다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초조하고 혼자 있길 좋아하고 잘 망각하고 게으르고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려워 하고 주변사람들이 밋고 뭔가 꺼려지는 일들이 많고 자주 머리가 복잡해지고 잠을 잘 수 없고 무섭거나 놀라는 꿈을 자주 꾀다.

Kedua: Kerasukan Karena Balas Dendam

두 번째 : 진의 복수심에 의한 빙의 - 인간이 모르고 행한 어떤 행위가 결과적으로 진에게 피해를 끼쳐 그에 대한 복수로서 진이 그 인간을 공격, 빙의하는 것.

Ketiga: Kerasukan Karena Hawa Nafsu

세 번째 : 탐욕에 의한 빙의 - 알라의 가르침에서 멀리 떠난 인간은 사실상 하는 것이 악령이나 다름 없으므로 진의 수족이 되어 다른 인간들을 호도하고 잘못 인도하도록 만든다. 그 증상으로는 알라를 기억하지 않으려 하고 부정한 것을 갈구해 사람들을 부정한 곳으로 등 떠밀며 옳고 그름의 경계가 모호하고 옳은 생각을 하지 못하며 혼자서는 안정감도 없고 늘 두려움을 느낀다.

Keempat: Kerasukan Karena Kezhaliman

네 번째 : 고통을 주려는 목적의 빙의 - 특별한 이유없이 단지 인간을 괴롭히려는 목적만을 가지며 위의 첫 번째 악마의 인간에 대한 적개심으로 인



Bengong - 멍 때리기

한 빙의와 비슷한 증상을 보인다.

Kelima: Kerasukan yang Disebabkan oleh Kerinduan dan Kecintaan

다섯 번째 : 정욕에 의한 빙의 - 어떤 이유로 사람에게 끌린 이성의 진이 달라 붙는 것. 증상으로서는 몽정, 결혼거부, 배우자와의 관계에 대한 싫증이나 혐오 등.

Keenam: Kerasukan yang Disebabkan oleh Adanya Pemanggilan Terhadap Jin

여섯번째 : 초혼술에 의한 빙의 - 초혼의 절차도 의미도 모르는 초짜 두꾼에 의해 불려온 진은 어떠한 용서나 타협도 없이 인간의 몸 속에 들어가 최악의 상황을 일으킨다.

(출처-<http://ruqyah-online.blogspot.com/2007/12/faktor-penyebab-kesurupan.html>)

여기서 의미하는 빙의는 게으르거나 결혼하기 싫어하는 것까지도 빙의현상의 결과로 보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을 기초로 한 것이지만 무덤터에 공장을 세워 그곳에 사는 진을 화나게 해서 집단 빙의현상이 벌어졌다는 식의 시각은 이 중 두 번째 원인인 ‘진의 복수심에 의한 빙의’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장의 성공을 시샘한 누군가가 두꾼을 시켜 그 공장에 진을 보내 집단빙의사태를 일으킨다고 보는 시각은 여섯번째 원인인 ‘초혼술에 의한 빙의’인 셈이고요.

이슬람적 시각에 입각한 집단빙의에 대한 조치 프로토콜도 있습니다. 비록 우린 무슬림이 아니지만 무슬림들의 이런 생각을 안다면 보다 효율적인 조치가 가능할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공유경제의 명(明)과 암(暗) 1



박상훈 (sanghoon.pak@gmail.com)  
Worldwide Logistics Indonesia 법인장

## 공

유경제(Sharing Economy)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우리의 생활에서도 공유경제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일단 공유경제에 대해서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피디아에서는 공유경제를 ‘물품을 소유의 개념이 아닌 서로 대여해 주고 차용해 쓰는 개념으로 인식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유경제의 정의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 보다는 유명한 공유경제 서비스를 알려 드리는 것이 더 쉽게 독자분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로는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와 거주지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엔비’ 그리고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스타트업인 ‘고젝’ 또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주로 공유경제의 명(明)에 대한 부분을 일단 주로 다루어 볼 예정입니다. 최근 공유경제를 표방하는 서비스들은 대부분 엄청난 기업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전 세계적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우버의 경우에도 인도네시아에 획기적인 교통서비스 변화를 가져다 주는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매번 택시를 불러도 어디까지 오고 있는지, 실제 택시가 오고 있는지 알 수도 없었고, 택시 탄다고 해도 기사가 고의적으로 막히는 길로 돌아간다거나 하는 일도 자주 당하셨을 것이며, 매번 하차 시에 잔돈 문제로 기분 한번 상하지 않았던 한국분들은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버는 러시아워 시간을 제외하면 택시보다 요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보통의 경우 택시요금의 70% 선으로 알려져 있음), 특히 잔돈 때문에 싸워야 하는 일이 없어 정말 좋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현금 결제를 도입하면서 잔돈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실제 우버의 경우 이런 문제를 바로 APP으로 클레임을 걸 수 있고 관련된 보상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택시에 비해 이런 문제가 생길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거기에 모든 기사가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선택할 확률도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한 제가 타 본 우버 기사들은 대부분 친절하고 영어도 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공유경제의 서비스들은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사이에 우리의 삶과 아주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유 경제’ 를 표방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가 최근 유달리 다른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가치에 비해 높은 평가를 받는 부분은 어떠한 부분 때문일까요?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한인분들에

게는 이제는 정말 익숙한 서비스가 되어 버린 ‘고객’의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이제까지

개인으로서 운영되어왔던 오토바이 운송, 배달을 공식적인 플랫폼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아직은 대중교통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한 인도네시아의 특성상 길거리에서 대기 중인 오토바이(오객)를 잡아 타고 이동을 하는 것은 쉽게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이 길거리 오토바이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가격이 정해지지 않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어떠한 보험처리도 받기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 입장에서는 길거리에서 잡아타는 손님 외에는 특별히 손님을 모객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기가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서 착안한 고객은 우버의 시스템을 오토바이에 적용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사람을 운송하는 부분과 물건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내어 놓습니다. 고객의 기사들에게 유니폼과 헬멧을 착용하게 함으로써, 특별한 마케팅 비용 없이도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운전자만으로도 광고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위치 추적을 통해서 안전성을 담보했으며, 가격을 적정한 수준에 맞춰서 이용하는 고객의 부담을 줄여줬고, 오객 운전자들은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자신만 열심히 하면,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심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봐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객이 새롭게 만들어낸 시장의 특성이 무언가 하는 부분입니다. 고객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공급자와 소비자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시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 시장은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인 길거리 오토바이를 활용한 시장이라는 부분입니다. Airbnb로 넘어가봐도 Airbnb가 새롭게 플랫폼으로 만들어낸 시장은 기존의 숙박시장에서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던 호텔이나 기존숙박업계의 시장이 아닌 이제까지는 조직화 되지 않았던 시장이 ‘민박’이라는 시장을 정규시장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실제 공유경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공유경제로 만들어 내는 시장이 이제까지 전통적인 비즈니스 속에서 존재했던 시장이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민박이던 오객이던 실제 존재하지 않았던 시장은 아니지만 불확실하고 정규화 되지 않은 시장을 정확한 플랫폼 내에 담아 내었을 때 그 시장의 가치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게 됩니다. 오늘은 일단 공유경제의 좋은 점과 그 비즈니스가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편에는 공유경제의 이면의 모습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 우리소다라운행 김용욱상무

2013년 부동산 투자 유망지 1위였던 자카르타의 올해 부동산시장은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 최근 가장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의 하나입니다.

이러한 질문의 의도는 2014년이후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인도네시아 부동산 경기에 대해 아마 내년도 아시안게임 등의 여러 가지 최근의 경기회복과 부양에 대한 기대가 전반영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1년이후 인도네시아 경제의 완전한 회복세와 해외직접투자(FDI) 증가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인도네시아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상승세는 2014년을 정점으로 2015년이후 조금 정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카르타 역시 2010년이전 도시부동산 투자전망 순위에서 주요도시 중 17 ~ 20위권이었으나 2013년에서 2015년까지 1위 ~ 3위를 기록한 후 2016년 6위, 2017년 7위의 순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 과거 자카르타 부동산투자 전망 순위

년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순위	20	17	14	11	1	3	2	6	7

(출처 : ULI, Emerging Trends In Real Estate Asia Pacific Survey)

모든 시장(원자재 등 상품가격, 환율, 부동산 시장 등)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전망 역시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와 경제가 성장하면 당연히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여 이에 따른 공급은 동시에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공급은 항상 수요를 앞서가며 과잉 공급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의 경우 대부분의 전문가 의견은 최근 몇 년간 공급초과상태라는 데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부동산 경기는 불황일 수 밖에 없지만, 이 경우에도 경기성장이 지속적으로 일정수준이상 유지되거나 정부당국의 경기부양책이나 국가적인 특별한 이벤트가 기대되는 경우 이러한 부동산 불황 시기 마지막 시점이 부동산 투자적기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올해 인도네시아 부동산 시장전망에 대해 하반기이후 점진적인 상승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는 글로벌 경제침체 지속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성장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한 MRT, 고속도로 및 대중교통개발 등의 SOC 투자에 따른 건설경기의 회복세 등을 거론 할 수 있겠습니다.

\* 특히 올해부터 자카르타는 토지 건물 세금(PBB)의 기준이 되는 과세평가액(NJOP, Nilai Jual Objek Pajak)이 20억 루피아 미만인 부동산 취득시 부동산취득세(BPHTB, Bea Perolehan Hak atas Tanah dan Bangunan)를 면제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어,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 규정 시행에 따라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이 자극을 받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 NJOP가 20억 루피아 미만인 부동산을 매입해 소유권을 처음 취득하는 경우, 또는 증여 받은 경우에도 증여세(bea waris) 면제, 상속(hibah wasiat)인 경우에도 BPHTB의 세율을 0% 적용 또는 면제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모두 투자자 본인들에게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2017년 자카르타 부동산 시장 전망은 부정적인 의견보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유하고 있는 고객님의 자산 운용에 있어서 한번 정도는 부동산으로 관심을 돌려보는 것은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 2017년 2월 월간 뉴스 브리핑

제공:자카르타경제신문(pagi.co.id)

## 인도네시아에 꿈이지 않는 자연재해, 매년 증가하는 추세



인도네시아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기상청은 지난 2015년 접수된 자연재해는 1,732건이었으나 2016년에는 2,384건으로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건기와 우기로 나뉘는 2계절 국가로서, 우기 때마다 일어나는 물난리로 골머리를 앓는 등 일어나는 자연재해 피해의 92 퍼센트가 홍수로 인한 피해다.

이번 달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기에 이상기후까지 합세하면서 예측이 어려운 폭우와 기상 변화가 계속되어 발 빠른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다. 전국 각지에서 홍수로 인한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국가방재청(BNPB)의 조사에 의하면 1억 4천 8백 4십만 명의 국민들이 지진의 위험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5백만 명의 국민들이 쓰나미, 1백 2십만 명의 국민들이 화산분출, 6천 3백 7십만 명의 국민들이 홍수, 4천 9십만 명의 국민들이 산사태

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전국에서 386개 지역은 지진 피해, 233개 지역은 쓰나미, 75개 지역은 화산분출, 315개 지역은 홍수, 274개 지역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특별히 높은 지역으로 분류된다.

지난 2016년에는 중부 자와에서만 639회의 자연재해가 발생해 전국에서 가장 여러 번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되었다. 동부 자와 409회와 서부 자와 329회, 동부 깔리만탄 190회, 그리고 아체 83회가 그 뒤를 이었다.

이 중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재해는 홍수로, 2016년 한 해 동안에만 775회가 발생했다. 정부는 매년 새로운 홍수 대비책을 내놓고 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자연재해로 매년 30조 루피아에 상당하는 피해를 보고 있다



##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 종교 · 인종 전쟁 비화 중국계 기독교인 현지사에 무슬림 후보 도전장 내밀어



4월 결선투표를 앞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주지사 선거는 어느 때보다도 과열되는 양상이다. 반(反)기독교, 반중국 정서가 큰불을 지폈다. 중국계 기독교인 현 주지사를 떨어뜨리려고 이슬람 강경파가 총공세를 펼치는 모양새다. 자카르타 주지사는 대권 도전의 디딤돌이어서 각 세력이 필사적으로 달려들고 있다.

지난 15일 실시된 1차 투표에서 바수끼 짜하야 뿌르나마 자카르타 현 주지사가 43%, 아니스 바스웨단 전 교육장관이 40%를 득표했다.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아구스 유도요노는 17% 득표에 그쳤다. 이는 잠정 결과다. 공식 개표 결과가 이와 대동소이하게 나오면 과반 득표자가 없기 때문에 1위 뿌르나마와 2위 바스웨단이 4월에 결선투표를 치르게 된다.

뿌르나마 주지사는 중국계 기독교인이며 조코 위도도(55)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다. 바스웨단과 유도요노는 모두 무슬림이다. 인도네시아 인구의 87%가 무슬림인 것을 감안하면 유도요노를 지지했던 무슬림 표 상당수가 결선투표에서 바스웨단에게 쏠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결과를 속단할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 특유의 종교 환경 때문이다.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이면서도 ‘온건한 이슬람’ 과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한다.

이슬람 외 5개 종교(개신교 가톨릭 힌두교 불교 유교)의 자유를 보장한다. 다른 이슬람 국가에 비해 종교 간 사이도 좋은 편이다.

다만 지난해부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뿌르나마가 지난해 9월 대중 연설에서 “ ‘코란이 무슬림이 아닌 지도자를 금한다’ 고 왜곡해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고 발언한 것을 두고 무슬림 강경파가 ‘신성모독’ 이라며 들고일어났다.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고 뿌르나마가 신성모독 혐의로 기소되기에 이르렀다.

종교적 요인만 작용한 것은 아니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는 사회적 불평등 요인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인구의 1%에 불과하면서도 경제권을 장악한 중국계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반감을 무슬림 강경파가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무슬림 강경파는 악성 루머와 가짜 뉴스를 퍼뜨리며 여론전을 주도했다. 위도도 대통령과 뿌르나마로 대표되는 비주류 개혁파에 위기감을 느낀 기성 정치권도 이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뿌르나마가 끝내 재선에 실패하면 위도도 대통령의 2019년 재선 도전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뿌르나마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최대 5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 MRT 건설 순조롭게 진행, 스나얀 출발 굴착기 미드플라자 인근 부지역 도달

자카르타 특별 주 대량 수속 열차(MRT) 건설을 위한 터널 굴착기가 스나얀의 뿌무다 동상과 중앙 자카르타 부지역까지 약 3.98 킬로미터 구간을 관통했다. 현지언론에 따르면 터널 굴착 작업에 투입된 원통형 굴착 머신 2호기가 16일, 부지역에 도달해 건설 작업자들이 모여 축하하고 기념 촬영을 하는 등 성과를 보였다.



건설 작업에 투입된 굴착기 2기는 스나얀에서 작업을 이어왔다. 한팀에 25명으로 이루어진 4개 팀이 교대로 작업하며 24시간 굴착 작업에 매달려왔다. 또한 역 구내와 출입구의 건설 작업 등에 대한 작업 인원은 약 천 여명에 이른다.

자카르타 MRT 남북선 터널 공사에 사용된 터널굴착기 커터 헤드는 지난 2015년 8월께 남부 자카르타 스나얀에 위치한 뿌무다 동상 이전 공사 현장에 투입된 바 있다. MRT자카르타 공사는 2015년 9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남북선 터널 공사에 사용되는 굴착기는 상행선과 하행선에 각각 1대씩 2대가 배치된다. 직경 6.7m, 길이 11m로 일본으로부터 몸통 부분이 6개로 분리되어 해상으로 운송됐다.

이번에 부지역에 도착한 굴착 2호기는 상행선을 담당하고 있다. 하행선은 1호기가 작업중으로 지난 1월 25일 부지역에 도착, 현재는 굴착기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해체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역 구내, 출입구, 환기구 등의 건설이 추진된다.

하행선 터널 공사는 2015년 9월 말부터, 상행

선은 10월 말부터 시작되었으며 청년상 전 지점부터 중부 자카르타 미드 플라자를 향해 북상해왔다.

굴착기는 24시간 가동되어 하루 약 10m 가량 전진한다. 터널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쉴드터널 형태로 깊이는 청년상 근처가 가장 얇은 지하 약 3.6m이다. 가장 깊은 곳은 미드 플라자쪽으로 부지역 근처 약 15.9m로 예상된다. 남북선 중 지하역은 총 6개이다.

남북선 전체적으로는 남부 자카르타 Lebak Bulus와 중부 자카르타 호텔 인도네시아(HI) 전 로터리를 연결하는 제 1기 노선(15.7km)과 HI 전 로터리와 북부 자카르타 감땡 반단을 잇는 제 2기 노선(8.1km) 등 총 23.8km에 21개역이 위치한다. 오는 2018년 제 1기 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한편, 지상으로 연결되는 부분은 현재 토지 취득 문제로 작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토지 소유자가 토지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수용협상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 '차량 홀짝제 효과 없다' 에 72% 동의… 자카르타주정부 “믿고 따라와 달라”



인도네시아 여론조사 기관인 끄다이 꼬빠 (Diskusi dan Kajian Opini Publik Indonesia, Kedai Kopi)가 1월 9일~12일 동안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자카르타특별주 교통 체증 완화 목적으로 작년부터 실시된 차량 홀짝제가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00명을 대상으로 시행된 이번 조사의 응답자 72%가 ‘홀짝제는 교통 체증을 완화시키지 않고 있다’ 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초에 도입 예정인 전자식 도로통행료 (Electronic Road Pricing×ERP)에 대해서도 64.3%가 정체 완화 효과에 비관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자카르타주정부가 작년 8월 30일에 도입한 차량 홀짝제는 차량 번호판의 마지막 숫자를 바탕으로 수디르만, 따린, 가뽏 수브로또 일부 대로의 진입을 규제한다. 짝수날은 짝수 번호가, 홀수날은 홀수 번호가 출퇴근 시간대 해당 대로의 통행이 가능하다. 시간대는 오전 7시~10시, 오후 4시~8시 까지 출퇴근 시간이다.

올해 2월 10일까지 적발된 위반자 수는 6,588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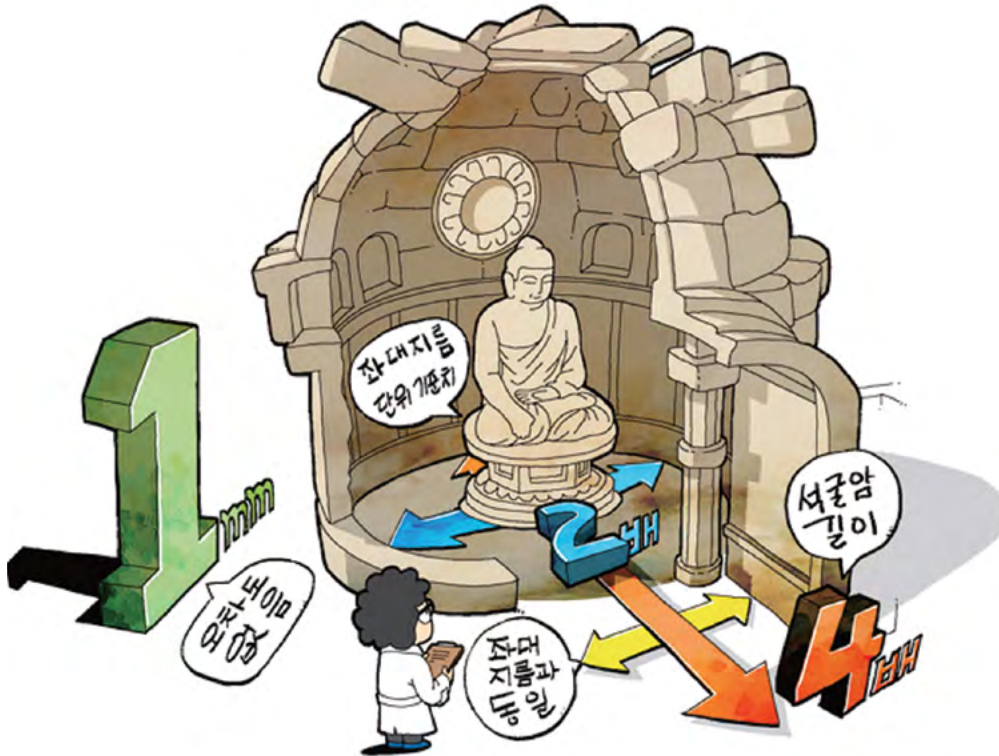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5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교통경찰당국의 부디얀또 국장은 “도로정체 예측 데이터에 따르면 홀짝제를 통해 9~27% 줄일 수 있다” 라고 홀짝제 시행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디얀또 국장은 “홀짝제는 기존 쓰리인원(3-in-1) 제도 폐지에서 ERP 도입 이전에 적용되는 임시 조치로 볼 수 있다” 며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으로 생각한다. 믿고 따라와 달라” 라고 덧붙였다.



# 완벽한 비례와 균형으로 완성한 문화유산

## 국보제24호 석굴암



‘좌대 지름’을 기준으로 완성한 석굴암의 균형 석굴암은 신라 경덕왕 10년(751) 때 재상 김대성이 공사를 시작해 혜공왕 10년(774)에 완성한 한국 건축을 대표하는 유산이다. 당나라나 서역과 교류가 활발했던 경덕 왕대는 학자들이나 승려들이 중국, 서역, 인도 등을 다니며 당시 널리 성행했던 석굴사원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를 신라에서도 실현하고자 했지만, 바위 대부분이 단단한 화강암이라 굴착이 쉽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서산 마애불이나 경주 남산의 삼화령 석실 모두 바위를 움푹하게 깎아내 불상을 새겨 넣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을 다듬어 조립한 인조 석굴인 석굴암에 깃든 정신과 노고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석굴암은 인간이 만들어 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기술로 축조됐다고 할 만큼 정확한 비율을 선보인다. 본존불상이 앉아 있는 좌대의 지름을 단위 기준으로 하면, 석굴암의 너비는 좌대 지름의 2배,

길이는 4배이며, 주실로 들어서는 입구 또한 좌대 지름과 같다. 아울러 본존불상 뒷벽의 11면 관음상을 가운데에 두고 그 좌우에 다섯씩 배치된 ‘십대제자상’ 역시 높이가 단위 기준치인 좌대 지름과 동일하다. 단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은 비례와 균형이다.

### 본존불상 자체가자인 완벽한 비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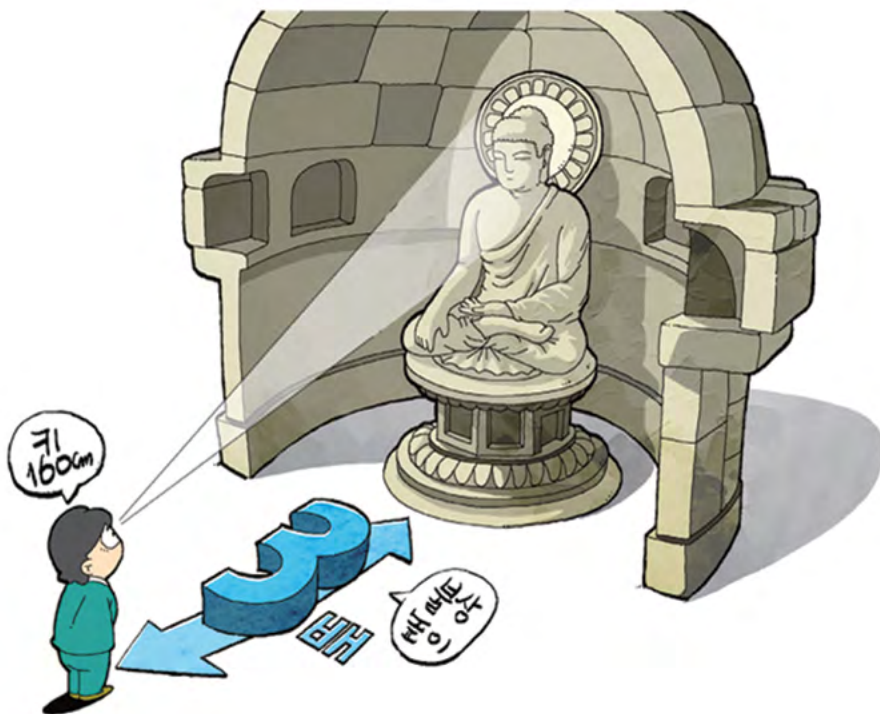
신라시대 전성기의 최고 걸작인 석굴암은 건축, 수리, 기하학, 종교, 예술이 실현된 작품이다. 동양식의 지붕은 하늘을 형상화했으며, 석굴암의 부처는 우주의 중심이다. 그리고 각각의 개성을 갖춘 십대제자상은 우주의 다른 궤도를 그리는 천체의 무리이다. 부처가 깨달음을 얻는 순간을 표현한 본존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본존불상의 얼굴 너비는 2.2자, 가슴 폭은 4.4자, 어깨 폭은 6.6자, 무릎의 너비는 8.8자로



1:2:3:4의 비율을 갖췄다. 기준이 되는 1.1자는 본존불상 높이인 3.26m의 1/10이다. 1/10은 기원전 25년 건축가이자 사상가인 비트루비우스가 주창한 균제비례와 일치한다. 균제비례는 인체에서 얻어진 것으로 가장 안정감을 주는 비율이다. 건축미는 올바른 균제비례를 이룰 때 완성되기 때문에 신라인들이 가진 건축 기술의 뛰어남을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다.

### 참배자의 시각으로 만든 예술의 극치

사천왕이 조각된 통로(비도 扉道)를 따라 나오면 예배공간이 나온다. 여기에 서면 불상의 머리가 뒤에 있는 광배의 중앙에 오게 된다. 이는 키가 160cm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 것이다. 이곳에서 바라보면 참배자의 시각에 원형의 광배와 주변의 균일한 연꽃잎 장식, 불상의 얼굴 또한 대칭이 완벽해 보인다. 하지만 광배는 좌우 224.2cm, 상하 228.2cm로 타원형이며 연꽃잎 역시 각각 크기가 다르다. 그뿐만 아니라 본존불의 눈썹과 이마는 물론 어깨와 무릎은 좌우가 다르다. 이렇게 비대칭인 이유는 참배자의 자리에서 바라봤을 때 비로소 완벽한 대칭을 이루도록 계산했기 때문이다. 비대칭과 대칭의 절묘한 조화인 것이다.



(월간 문화재사랑)  
일러스트·이근길



#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

## 한국영화 - "내부자들"



‘인상파의 아버지’ 에두아르 마네 ‘풀밭위의 점심식사’ Edouard Manet, 프랑스(1832~1883)

2015년에 개봉한 대한민국 영화 내부자들 속 그림으로 내 첫 이야기를 풀어본다.

윤태호의 웹툰 <내부자들>을 원작으로 정치인과 재벌들과 정치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배신과 음모가 판을 치는 본격 정치 영화이다. 관객 500만 돌파로 인해 2015년 12월 31일 내부자들 - 디 오리지널(이하 ‘디 오리지널’)이라는 제목으로 감독판이 개봉했다.

마네의 ‘풀밭위의 점심식사’ 그림을 보면 두명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한명의 여자는 뒤에서 목욕을 하고있고 또 한명의 여자는 옷을 벗은채 나체의 몸으로 남자들과 수다를 떨고 있죠.

이 그림은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였나 봅니다. 분노하고 욕하는 관객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해지나, 19세기의 누드그림은 사람 아닌 신만이 가능했습니다. 비너스가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은 보기 힘들었던 것도 이러한 이유인거죠. 우리는 비너스의 몸, 옷을 걸치지 않은 아름다운 몸의 그림을 익숙하게 봐왔습니다. 신의 아름다운 몸만이 그림에서 표현하는 시대였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리얼리즘이 아닌 환타지적인 표현으로써 허용되는 시기였죠. 하지만 이 그림에서 정면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나체의 여성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에두아르마네는 고급 매춘부의 느낌으로 그림 속에 그려 넣었습니다. 판타지가 아닌 리얼한 표현의 그림에 비평가들은 악평을 쏟아냈습니다. 이 작품은 살롱전 거부, 낙선전에 전시 티치아노와 라파엘로의 작품을



재해석한 것으로 전형적인 회화에 충격과 동시에 누드의 여인이 정면을 쳐다보는 것이 윤리에 반한다며 공격적인 비판을 받았습니다.

영화 내부자들에서 나체의 여성들이 적나라한 모습을 보이고 이강희, 장필우, 오희장의 옆자리에서 시중을 드는 나체 여성들은 그림 속의 매춘 여성들처럼 아름다움을 강조한 신의 모습이 아닌 한국사회가 숨기고 싶은 치부 그 자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19세기에 느껴던 그 불쾌감을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영화를보는 관객이 똑같이 느끼길 바랬던거죠. 그림에서 19세기에 논란이 되었던 것 중 더 논란였던 건 여성과는 대조적으로 두 남성은 복장을 잘 갖춰입고 여유롭고 거만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근엄하지만 나체의 여성을 보면서 즐기고 있죠. 19세기후반 프랑스 파리에는 퇴폐적인 술집이 많이 생겼고 상류층 사람들은 이곳을 드나들며 이중적인 생활을 즐겼다고 합니다. 19세기의 핵폭탄 인거죠. 에두아르마네는 사람들이 숨겨온 것들을 부셔버리고 빛과 어둠을 주제로 사물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인상파의 대표작으로 남겼습니다. 이 그림은 감독이 영화에서 말하고 싶은 숨겨둔 히든카드라고 봅니다.



# 영화 내부자들 중에 국회의원 장필우가 노출이 심한 여성들의 틈 속에서 재벌회장 오현수에게 자신의 검사시절 이야기를 늘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카메라는 7초여 서서히 줌 아웃을 하며 이 그림이 등장 합니다.

마네의 새로운 작업은 모네, 르누와르, 드가 등 젊은 화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작품의 주제와 테크닉때문에 당시 주류를 이루던 화가와 비평가들로부터 악평을 들어야 했고, 특히 1863년 발표한 <폴위의 점심식사>와 <올랭피아>는 대중의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그러나 이 작품들의 스캔들이 마네를 일약 스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참고: 씨네21>

글 / 김 은 정 (한인미술협회 회원) kimejart0@gmail.com(카톡 아이디 ejkimRidia)

## <3월의 행복에세이>



이 동 균 / 수필가(한국문협 인니지부 부회장)  
andersonlee333@gmail.com

어느덧 한해가 훌쩍 지나갔다. 지난해 별로 열정적으로 살지도 못했는데 나이만 한 살 더 먹은 것이다. 주위의 자연환경은 작년의 3월이나 별 차이 없이 자기들끼리 잘 어우러져 변함없이 지내고 있다. 주말을 제외하고 일주일이면 거의 매일 같이 회사로 출근하는 길가에 있는 집들과 건물들은 점점 색깔이 변하며 늙어가는데 옆에 붙어 일렬로 서있는 바람에 살랑대는 나무와 향기 먹은 붉은 꽃들은 늘 변함이 없다. 이곳이 눈을 감고 작년 이맘때 한인뉴스 행복 에세이에 기고했던 '3월은 행복의 시작이다' 라는 나의 글을 회고해 본다.

올해 1월과 2월은 정신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보냈다. 작년 12월 중순까지는 한국에 머물렀다. 두 달 동안 청주 고향집에 있는 동안 인도네시아에서 제대로 맛보지 못한 인절미, 떡국, 잔치국수, 국밥, 순대, 호떡, 홍시, 딸기 등을 거의 매일 먹었다.

그랬더니 몸무게가 2Kg정도 부쩍 늘었다. 아내가 건강관리해야 한다고 하며 먹는 것을 자제하라고 주의를 수시로 주지만 내 입이 스스로 음식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이제는 나이 60이 되어 체중이 늘면 3대 질환의 공포(?)에 두려움을 느낀다.

그 3대 질환은 다름 아닌 고지혈, 당뇨, 고혈압이다. 이러한 것은 사람이 늙어지면서 당분, 지방 섭취, 영양과잉 등에 따른 소화, 대사 능력의 저하에 따른 질병인 것이다. 또한 면역체계도 같이 떨어져서 각종 바이러스 감염 즉, 감기, 구순염, 대상포진 등에 자주 걸리고 한번 생기면 젊은 시절 보다 잘 낫지도 않는다. 사실 그렇다고 해서 여러 가지 면역체계를 어떻게든 증진해 보려고 예방주사를 맞아 보면서 조금은 버틸 수는 있지만, 기대한

만큼 오래가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다. 한국에 있을 때, 가끔 친구들이 진료하고 있는 병원에 찾아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 친구의 사들이 새로운 예방약이 나왔다고 소개를 한다. 그래서 나도 건강을 챙겨 보려고 주의 깊게 이것저것 살펴는 보지만 썩 마음은 내키지 않았다. 그래도 인도네시아에 오면 저절로 병이 낫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견이 있을지 몰라도 우선 공기가 그런대로 좋다. 알뜰게 자주 오는 황사도 없고 자동차에서 많이 나오는 매연은 있으나 그래도 스모그는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요즘같이 비가 매일같이 내려오니 공기 정화도 자연히 되는 것이다. 또한 먹거리도 여기저기 찾아보면 한국과 비슷한 맵고 짭조름한 상큼한 맛도 있다.

행복은 사실 큰 것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얼핏 생각하면 행복은 일반적으로 많은 돈, 부동산, 지식들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그 속에는 많은 인간들 사이의 배신, 불신, 분노, 음모, 절망 등이 도사리고 있다. 이러한 실상들은 우리가 언론매체를 통하여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진정 그 속에서 행복을 찾아가면 대만족이다.

WHO 통계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살아 가는 사람들이 행복감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그룹의 사람보다 훨씬 높았다. 원래 한국 속담에도 “천석꾼은 천 가지의



고민을 갖고 살고 만석꾼은 만 가지의 고민과 걱정거리를 가지고 산다.” 고 했다. 오늘 이 시점, 새로운 3월을 맞이하여, 진정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다. 무릇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이 살아 있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산술적인 통계를 보더라도 대략 한국인 평균 수명은 75세 전후이다. 얼핏 보면 긴 세월 같지만 어린 시절의 여러 각종 질병들과 힘겹게 싸우고 공부하는데 보낸 시간을 25년, 본인과 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열심히 일한 시간 30년을 보내고 나면 25년 남는다. 그 중에서 건강하고 건전한 시간은 불과 15년 남짓 정도가 될 것이다. (365일X15년 = 5,475일)

물론 각자의 보낸 시간들을 어떻게 계산하기 나름이지만, 참으로 찰나와 같은 시간들이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사람들은 앞으로 살아 있을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여 그 일을 내일 하자고 자주 말한다, 그러나 사실 내일은 절대로 기약할 수 없는 날이다.” 조금은 야박하지만 공감 가는 말이다. 그래서 내일이라는 시간을 믿지 말고 오늘 지금 이 시각, 나만의 행복한 시간을 가져야 한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이 지극히 이기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내가 행복해야 내 주위가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별다른 이견은 없을 것이다. 나는 취미생활로 글을 쓰는 수필 작가이다. 물론 나도 본연의 생업은 있다. 글을 쓴다는 것이 고독스럽고 조금은 쓸쓸하기도 하지만, 말로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나에게 작은 행복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남에게 보여 주기 위해 글을 쓰는 것이 아닌 내 스스로의 카타르시스를 만들기 위한 글을 만들면서 지나간 일들에 대한 아쉬움과 아픔을 잊고 앞으로 있을 고난과 난관에 대한 용기와 희망을 얻는 것이라 믿는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며 공감하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또 다른 나의 행복감에 보너스를 안겨 주는 것이다. 독자 여러분도 조그마한 일에 보람을 찾으며 자신만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해 본다.



## 이 표현이 맞나요?

글: 최서혜

### 13. 인도네시아 채소와 고기, 생선류

이번 회에서는 주부로서 궁금했던 여러 식재료 이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니어로 의사소통을 잘하는 것과는 전혀 별개로 장을 볼 때 “아 인도네시아에도 한국과 같은 채소가 있을까? 이 생선은 도대체 뭘까?” 궁금해하면서 고민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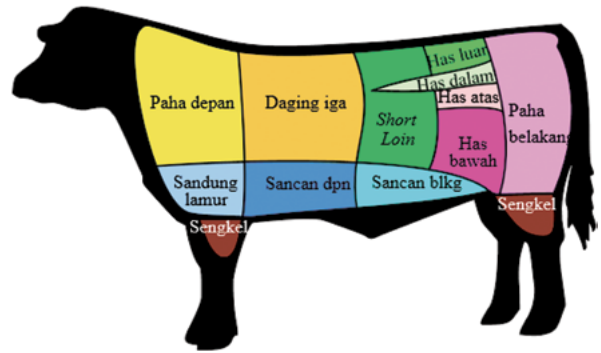
저는 특히 고기와 생선을 구입할 때 많이 헛갈려서 처음에는 한국 마트에서만 구입했습니다. 비교적 자주 식탁에 오르내리는 채소, 고기, 생선, 양념 등의 이름을 한 번 살펴볼까요?

#### #채소(Sayuran)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아삼자와(*Asam jawa*, 타마린드), 양파(*bawang bombai*), 마늘(*bawang putih*), 붉은 양파(*bawang merah*), 바얌(*bayam*, 비듬나물, 시금치 과의 야채), *buncis*(채소로 요리해먹는 콩, *kacang panjang*), 브로콜리(*brokoli*), 고추(*cabe*, *cabai*), 작은 고추(*cabe rawit*), 파(*daun bawang*), 싱콩잎(*daun singkong*), 셀러리(*daun seledri*), 완두(*ercis*), 옥수수(*jagung*), 버섯(*jamur*), 팥(*kacang merah*), 땅콩(*kacang tanah*), 깡궁(*kangkung*, 시금치류 채소), 감자(*kentang*), 깔리안(*kailan*·芥蘭), 콜리플라워(*kubis bunga*), 양배추(*Kol*, *kubis*), 부추(*kucai*), 호박(*Labu*), 표주박(*Labu air*), 무(*lobak*), 파프리카(*Paprika*), 죽순(*rebung*), 배추(*sawi putih*), 레몬그라스(*Serai*), 가지(*terong*), 오이(*timun*), 숙주 또는 콩나물(*toge*), 토마토(*tomat*), 고구마(*ubi*), 당근(*wortel*)

## #고기류(Daging)

-Daging sapi(소고기)



1. Paha depan(Chuck): 목심.
2. Iga sapi(rib): 갈비
3. Has Dalam(Fillet, Tenderloin): 안심
4. Has Luar(Sirloin): 등심
5. Tanjung(Rump): 우둔살
6. Lamusir depan(Cube roll, Rib Eye Roll): 알등심
7. Penutup daging sapi(Topside, Round): 불기살, 우둔살
8. Punuk(blade): 견갑골살, 어깨양지, 어깨살
9. Tulang T(T-bone): 티본
10. Ekor sapi(buntut sapi): 소꼬리
11. Sandung lamur(Brisket): 앞 양지, 차돌양지
12. Samcan(Flank, plate): 양지
13. Sengkel(Shank): 사태
14. Gandik(Silver Side): 우둔(하), 흉두께와 붙은 부분
15. Kelapa(Knuckle): 설도하, 도가니살
16. Hati sapi(liver): 소 간
17. Jeroan Sapi(usus, limpa, babat): 소 내장부위(장, 간, 위)
18. Kikil sapi: 우족

## #기타 고기류

daging babi(돼지고기), daging ayam(닭고기), daging bebek(오리고기),  
daging domba(양고기), daging kambing(염소고기), daging kelinci(토끼고기)  
\*paha(허벅다리), kaki(족), dada(가슴), sayap(날개)

## #생선류(Ikan)

참치(Ikan tuna), 멸치(Ikan Teri), 점다랑어(Ikan Tongkol), 가다랑어(Ikan Cakalang),  
도미(Ikan Kakap), 줄무늬 고등어속(Ikan Kembung), 삼치(Ikan Tenggiri), 송어과  
생선(Ikan Belanak), 고등어(Ikan Makarel), 독가시치(Ikan Baronang), 다금바리류  
(Kerapu), 병어류(Bawal), 장어(Ikan Ular, Unagi), 잉어(Ikan mas), 구라메(담수어 일  
종, Ikan gurame), 메기(Lele), 오징어(Cumi-cumi), 새우(Udang), 게(Kepiting)

\*팁! 아기이유식에 자주 쓰는 흰살 생선 ‘이칸 도리(Ikan Dori)’의 원래 이름은 Ikan Patin  
으로 ‘가이양’이라 불리우는 상어 메기과의 대형어류입니다.

## #양념류(bumbu)

소금(garam), 설탕(gula), 고춧가루(Bubuk cabe), 참기름(Minyak wijen), 간장(Saos asin=kecap asin), 월계수잎(daun salam), 생강(jahe), 계피(kayu manis), 고수(ketumbar), 강황(kunyit), 후추(lada), 핑거루트(temu kunci), 육두구(pala), 정향(cengkeh), 밀가루(tepung terigu), 호밀(gandum), 깨짬마니스(Kecap manis), 식초(cuka), 생강류 식물(lengkuas)

## 아하! 알쏭달쏭 표현 제대로 알기

### #착륙?

영어에서 온 'imitasi', 인도네시아어로는 palsu(가짜의), tiruan(모방, 모조, 위조), bajakan(해적판, 복제판), KW(kualitas에서 온 말로 역시 착륙을 의미), aspal(asli tapi palsu) 등이 있다. 착륙의 반대말로 진품은 'asli'로 표현한다. 식당에서 캔 주스인지 과일 원액 주스인지 물을 때 Juice orangnya asli?(오렌지 주스 원액인가요?) 어디 출신입니까? Asalnya dari mana?(Asal dari mana?), 토착민은 orang asli다.

### #최근, 최신의

Mutakhir, Paling akhir가 자주 쓰인다. 'menurut informasi mutakhir...' (최신 정보에 따르면)', teknis mutakhir(최신기술) 등으로 표현하며 회화에서는 terakhir도 많이 사용된다.

### Ada informasi(kabar) terakhir mengenai teknis 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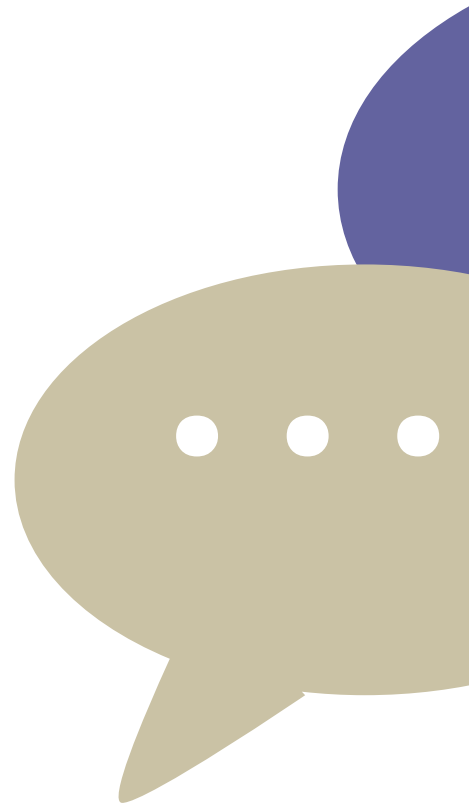
(IT기술에 대한 최신 정보가 있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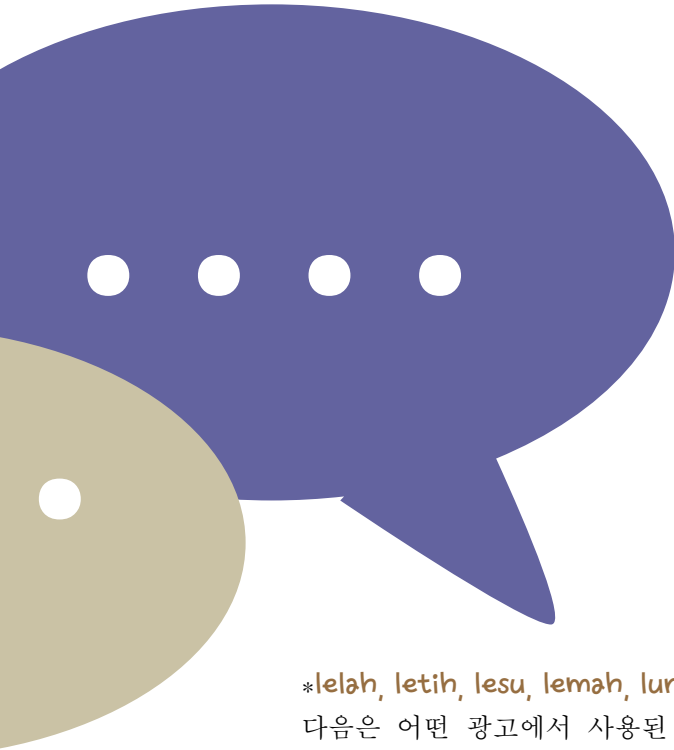
### Adakah berita terakhir tentang hasil persidangan kasus Basuki?

(바수끼 재판에 관한 최근 뉴스가 어떤 것이 있나요?)

### # '아~피곤하다!'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피곤하다'는 표현으로 우선 일반적으로 쓰이는 단어로는 'Cape 또는 Capek'이 있다. 실제 피곤하다는 여러 종류의 단어 lemas, lelah, letih, lesu 등을 구분해보면 △감기몸살로 몸에 힘이 없이 축 쳐지는 모양새는 lemas △과로로 인한 피로는 lelah △일반적인 체력소모로 인한 피로는 letih △수면 부족으로 오는 피로는 lesu △매우 지친다는 표현은 lunglai이다.





\*lelah, letih, lesu, lemah, lunglai = 5L(Lima L)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다음은 어떤 광고에서 사용된 문장이다. "Anda kena gejala 5L? Segeralah minum vitamin dan istirahatlah yang cukup. (당신 지금 5L 증상을 겪고 있죠? 비타민 C를 섭취하고, 충분히 쉬세요.)"

Mr. Kim sering lembur dan kurang tidur jadi tampak lemas.  
(미스터김은 자주 야근을 하고 잠이 부족해 피로해 보인다.)

### # Bekas의 뜻은?

헌(낡은), 흔적, 증거, 이전의(前) 등의 의미가 있다. Barang-barang bekas(barang second)는 중고 물건, bekas(mantan) presiden은 전 대통령이 된다.

Mau jualan barang bekas laku? Jual aja di OLX.  
(괜찮은 중고 물건을 팔고 싶은가요? OLX에서 판매하세요!)

### #Copy?

복사(카피)는 영어에서 쓰는 Copy 그대로 사용하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어로 복사는 salinan이다. 카본카피(CC), 즉 사본은 tembusan이다. 회사에서 경비절감을 위해 사용하는 이면지는 kentas bekas이다.



# 생활 속 심리 현상을 알아보자!

## 므두셀라 증후군

### Methuselah Syndrome

과거의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 현상

과거의 나쁜 기억은 지우고 좋은 기억만 남기려는 심리 현상이다. 일종의 기억 왜곡 현상으로 과거를 실제보다 아름답게 포장해 추억한다.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함께 있었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나쁜 일은 잊어버리고 좋은 일만 기억하는 것이다. 첫사랑이나 유년시절에 대해 아름다운 기억만 떠올리는 현상이 므두셀라 증후군에 해당한다.

므두셀라 증후군이란 이름은 《구약성서》 〈창세기〉에 나오는 므두셀라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므두셀라는 969세까지 산 것으로 기록된 인물이다. 구약성서 내에서 가장 오래 산 인물로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므두셀라 증후군은 나이가 들수록 좋았던 일만 기억하며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도피심리로, 장수의 대명사인 므두셀라의 이름을 딴 것이다.

현재 자신의 상황이 좋지 않거나 우울할수록 므두셀라 증후군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므두셀라 증후군을 활용한 레트로 마케팅 역시 불황기에 주로 등장한다. 레트로 마케팅이란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과거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되살려 활용하는 복고 마케팅을 말한다. 새로운 컨셉을 잡는 것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람들의 므두셀라 증후군을 자극해 광고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경기가 어려울수록 과거를 추억하는 소비자들이 레트로 마케팅을 통해 심리적 위안을 얻기 때문이다.



## 스티그마 효과

### 낙인효과Stigma Effect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어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강화하는 현상.

‘낙인효과’ 라고도 한다.

부정적인 낙인이 찍힌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주변에서 어떤 사람에게 편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영향으로 대상은 점점 더 나쁜 행동을 하게 되며 주변 인식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특정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악순환을 만들어내는 것을 일컫는 말로 범죄학이나 사회학, 심리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한다. 스티그마(Stigma)란 한국어로 ‘낙인’이란 뜻이다. 스티그마 효과는 1960년대 미국 사회학자 하워드 S. 베커의 ‘낙인 이론(Labelling Theory)’에 근거한다.





낙인 이론의 주요 논점은 범죄 행위로 인해 붙게 된 낙인이 그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격리하면서 결과적으로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는 것이다. 처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범죄자라는 낙인으로 인해 사회적 기회를 박탈당하면 결국 자신을 범죄자로 정체화하면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게 될 가능성이 크다.

스티그마 효과는 다양한 사회적 편견과 관련이 있다. 특정인에 대해 부정적 편견이 강할수록 그 대상자가 편견에 맞추어 행동하게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스티그마 효과와 반대로 주변에서 실제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대상자가 점차 그것에 맞게 행동하면서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은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 가르시아 효과

### Garcia Effect

음식을 먹은 뒤 구토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면 그 음식을 먹지 않게 되는 현상

음식을 먹은 뒤 구토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하면 그 음식을 다시 먹지 않는 현상이다. 고전적 조건 형성의 하나로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이 가진 생존 능력이다. 보통이나 구토를 한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위험한 음식을 인지하고 이를 피할 수 있어서다. 일반적으로 고전적 조건 형성은 여러 번 반복해야 조건 간 연관성이 형성되지만, 가르시아 효과는 한 번의 강렬한 경험으로도 특정 음식이나 맛에 대해 혐오감을 가질 수 있다. 다른 말로 ‘미각혐오학습(Taste Aversion Learning)’ 이라고도 한다.

가르시아 효과는 미국의 심리학자 존 가르시아(John Garcia)가 진행한 실험에서 유래하였다. 가르시아는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쥐에게 사카린이 든 물을 먹게 한 뒤 시간이 좀 지났을 때 감마선을 쬐어 구토를 유발했다. 감마선은 방사선의 하나로 투과력이 강하고 외부에서 피폭되어도 동물 내부의 장기에 손상을 주는 물질이다. 감마선에 노출된 쥐는 구역질을 했으며 이후로는 사카린이 든 물을 마시지 않았다. 사카린이 든 물을 마신 쥐 구토를 하기까지 다소 시간이 지났는데도 사카린으로 인해 아프게 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특히 쥐들은 한 번의 경험으로도 사카린이 든 물을 기피하게 되었다. 실험 과정에서 맛(사카린) 이외에도 소리와 시각 자극이 주어졌으나 쥐들은 맛 이외의 다른 요인에는 반응하지 않았다. 다른 요인으로 인한 문제일 수 있는데도 맛으로 인한 문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가르시아는 이 실험을 통해 가르시아 효과를 확인하고 1955년 논문으로 발표했다.1)

가르시아 효과는 생존을 위해 필요한 현상이다. 가르시아 효과로 인해 인간과 동물은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주는 음식물을 본능적으로 피할 수 있다. 가르시아 효과는 매우 강력하여 단 한 번의 경험으로도 음식을 혐오할 수 있다. 그 기억은 장기간 유지되며 평생 해당 음식을 먹지 않을 수도 있다.

[Daum백과]



## 인도네시아 민법(14)

이 승 민 변호사 · 변리사 yisngmin@centrin.net.id  
YSM & PARTNERS

(전호에서 계속)

### 11.8.3. 보증인과 채무자와의 관계

11.8.3.1.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갚은 경우에는 채권자의 모든 권리가 보증인에게 넘어 간다. 따라서 보증인은 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저당권 혹은 양도 담보권을 물려받게 된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보유자는 파산선고에 관계없이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목적물을 공매하여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다.

11.8.3.2. 보증인이 채무자의 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한 경우에, 보증인은 채권자에게 갚은 채무액, 이자 및 관련 경비를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보증인의 구상권), 아울러 민법은 보증인에게 피해보상 청구까지 허용하고 있다.

11.8.3.3.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하기 전 일지라도 채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혹은 보증 해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민법 제1843조에 규정되어 있다.

11.8.3.3.1. 보증인이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변제하라고 피소된 경우

11.8.3.3.2. 보증인의 보증을 일정시간이 지나면 보증을 해제해 주겠다고 약정한 경우

11.8.3.3.3. 채무가 만기된 경우

11.8.3.3.4. 본 채권 채무 약정서에 채무 만기일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약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난 경우. 그러나 이 조항은 내용이 비논리적이기 때문에 법조항은 있지만 실제로는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다.

### 11.8.4. 채무보증 시 유념해야 할 사항

채무자는 채무이행 의무가 있으므로 저당권이나 양도 담보권 제공이 당연하나, 보증인의 입장은 다르다.

특히 실제 사주가 아닌 현지 법인의 경영을 맡은 법인장 혹은 책임자는 연대보증이나 Personal Guarantee는 적극적으로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채무 상황이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출입국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개인적으로 경제적인 파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채무 이행을 무한 보증하는 연대보증이나 Personal Guarantee는 일해주고 봉급을 받아 가족의 생계비를 대는 임직원의 저야할 짐이 아니고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실제적인 사주 및 주주가 감당해야 할 짐일 것이다.

## 12. Somasi(최고)

12.1. 일반인에게는 다소 생소한 Somasi라는 단어는 네델란드어 법률전문 용어이며 인도네시아어로 Teguran이라고 번역하고 있으나 Somasi의 원래의 뜻과 Teguran에는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서 Teguran이라고 쓰는 사람도 있으나 법조계에서는 원어 그대로 Soamsi로 쓰는 사람이 훨씬 많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최고라는 뜻이며 Somasi는 채무를 상환하라, 동산 혹은 부동산을 명도하라, 어떤 행위를 하라, 하지 말라, 등을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행위를 뜻한다.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상환 재촉을 받을 때, 특히, 채권자자가 채권 회수 업무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수임받은 변호사가 채무자에게 취하는 1차적인 조치는 통상 채무자에게 미팅을 요청하여 채무자와 대면하여 구두로 채무 상환을 요구하거나, 서면으로 Somasi란 제목으로 시환을 정하여 채무상환을 요구한다. Somasi는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조치를 취하기 첫 수순이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대응책을 생각해야 하는 단계가 될 것이다.

## 12.2. Somasi의 법적인 효력

민법 제 1243 조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반드시 만기 이후 혹은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를 선언한 후에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채권이 있어도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Default 선언을 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만기가 되지 않았거나 Default 선언없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기각이 될 수 있다. Somasi는 이 만기 문제와 Default 선언 효과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 해준다. 채무자에게 Somasi를 보내면 법적으로 만기가 되고 Default 선언 효과가 있다.

## 12.3. Somasi 방법

권리보유자/채권자가 직접 하는 방법,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 과 변호사에게 의뢰하여 하는 방법이 있다. 각 방법의 장단점이 있다. 채권자가 직접 하는 경우에는 경비는 발생하지 않으나 채무자가 받아 드리는 정도는 통산 독촉장 정도이다. 법원을 통해서 하는 방법은 절차가 번잡하고 약간의 경비가 발생하나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 청구 계획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통해 하는 방법은 변호사비가 발생하나 편리하고 채무자가 받아드리는 정도가 시리어스하다. 변호사가 Somasi를 한 경우에 이를 묵살하는 채무자는 극히 드물며 통상 대부분의 채무자는 시리어스하게 반응을 보인다.

## 13. 계약위반(Wanprestasi)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계약 위반행위를 인도네시아에서는 네델란드어 법률전문용어인 Wanprestasi (완프레스타시)라고 말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어로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 라는 용어가 있지만, Lalai, Ingkar Janji 혹은 Cidra Janji 라는 용어는 계약위반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표현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조계 뿐 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대부분이 원어 그대로 Wanprestasi라고 쓰고 있다. Wanprestasi하면 자연스럽게 손해 배상이라는 문제가 대두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Wanprestasi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대처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하고 준비함이 바람직하다.

## 13.1. Wanprestasi의 종류

13.1.1.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 Wanprestasi

“예” 를 들면 2016. 10. 31 까지 특정 물품을 납부하기로 약정하고 특정물품을 전혀 납품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된다.

13.1.2.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약정한 사항과 다르게 이행한 Wanprestasi

“예” 를 들면 2016. 10. 31 까지 A급 물품을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A급 물품을 납품하지 않고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3.1.3. 이행하기로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긴 했으나 약정한 시기에 이행치 않고 시기적으로 늦게 이행한 Wanprestasi

“예” 를 들면 2008. 10. 31 까지 납품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는 2008. 10. 31. 이후에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13.1.4. 행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항을 어기고 행한 Wanprestasi

“예” 를 들면 시장에 판매하는 자사 제품은 반드시 A사를 통해서만 공급한다

는 Exclusive 계약을 맺고 슬그머니 자사 혹은 다른 회사를 통해서도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13.1.5. 상술한 형의 혼합 형태 Wanprestasi

“예” 를 들면 2016. 10. 31. 까지 A급 물품을 공급하기로 약정하였

으나 2016. 10. 31. 이후에 B급 물품을 납품한 경우에 해당된다.

(다음 호에 계속)



# 여행은 언제나 옳다

## - 자바의 스위스, 가룻 - 찌위데이(Garut Ciwidey)

글 : 이 인상 (전자동차학과교수, 은퇴비자로 6년째 거주 중)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머물 곳을 찾지 못해 헤매는 사람들일까.-보아야 할 것, 맞이해야 할 곳 생각에 근심을 빼기하고 마음에 행복을 더할 자연의 소리와 마주침을 위해 떠난다. 사람살이 비슷한 모양과 엇비슷한 모습의 날개짓과 출발점에서 종착점의 췌바퀴가 맞물림으로 내가 만들어낸 설렘, 조급함, 느긋함을 돌아봄 없이 떠난다. 지금 “우리는 어디서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무엇을 찾아보러 가는 가. 무엇을 보고 느낄 것인가. 여행 중 무슨 사연을 담고 담을 것인가” 를 과제를 가지고 말이다.

25명의 회원들이 이른 아침에 서둘러 버스를 타고 자카르타에서 170Km에 위치한 “자바의 스위스” 라고 하는 가룻과 찌위데이(Garut, Ciwidey)로 탐방 여행길에 올랐다. 회원들이 본인 소개를 하기를 멧쩍어하자 조은숙 수석팀장께서 ‘자기소개는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본보기

를 보여주었다.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이 그러는데 저는 못하는 게 없네요.” 한바탕 웃고 나서 모두 그런 식으로 소개하자 어색한 분위기가 금방 화기에애해졌다.

첫째 날 고속도로에 문제가 생겨 돌아가야 했고, 교통체증까지 더했으나 누구하나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지 않았다. 연구원 문화탐방답게 인니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설명과 시낭송으로 지루함을 비움과 채움으로 승화시켰다.

8세기에 세워진 “짱꾸앙사원” (Candi Cangkuang)으로 라깃(Rakit)이라 불리는 대나무 꺾목을 타고 갔다. 지난 번 탐방처럼 라깃 위에서 들려주던 거리의 악사(Pengamen)들이 온 몸으로 구슬프게 부르는 가락이 생각나 자꾸만 돌아보았다. 손수 만든 악기로 꺾목 물결에 따라 흐르는 노래를 듣지 못해 아쉬웠다. 뱃사공이 젓는 대로 물결 따라 흘러 우리는 짱꾸앙 힌두사원에 도착했다.

자바지역 이슬람 첫 순교자 “아리프 무함마드 (Arif Muhammad)의 묘지”가 있는 곳이기도 하다. 두 종교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룬 모습에서 낯설지만, 항상 이방인에게 미소로서 대하는 포용성의 의미를 알게 하는 것 같다. 어느 듯 해님은 작별인사를 재촉할 때, 연꽃이 내려다보이는 방갈로 숙소에 도착하였다. 늦은 저녁 식사를 하고 온천욕을 하면서 피로를 풀었다. 오늘 본 잔디 짱꾸앙 (Candi Cangkuang) 깜뽕 이슬람 촌(Kampung Adat Pulo) 풍경을 연못 위에 지워진 방에 한 아름 풀어놓고, 첫 밤을 잠의 여신과 함께 꿈속을 헤매며, ‘여행은 항상 옳다.’ 라고 말한 어느 회원의 말을 생각했다.

둘째 날 뎀졸라야 영웅묘지(Makam Pahlawan Tenjolaya)에서, 인도네시아 독립전쟁 영웅 양칠성님(1919~1948. 08.10.)이 잠들어 있는 곳을 참배하였다. 그는 종전 후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네덜란드의 재식민지화 정책에 맞서 조선인으로서 인도네시아 독립 전쟁에 참가하여 네덜란드 군에게 큰 타격을 주는 “뽕에란 빠팍 (Pangeran Papak) 부대의 대원으로 가장 용감한 투쟁 용사였다.

양칠성님을 짝사랑했던 여인의 밀고로 1948년 가룡 갈룡궁 (Galunggung) 산 속에서 네덜란드 군에 체포돼 이듬해 1949년 8월10일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총살되어 일반인 공동묘지인 ‘빠시 르쁘고르’에 안장하게 된다.

비운의 전사(戰士) 양칠성은 수하르토 대통령 당시 외국인 독립영웅으로 추서되어 1975년 11월19일 이곳에 잠들게 된다. 한국인의 열, 혼, 녀을 새긴 묘비에 양칠성이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새겨져 잘 보이지 않아 안타까움을 더했다.

자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토속 풍습과 문화를 간직한 ‘깜뽕 나가(Kampung Naga) 용의 마을’로 향하였다. 원시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며 현대문명을 거부하는 그들은 전기도 사용하지 않으며, 이방인과 결혼을 하면 마을을 떠나야한다. 마을 방문을 마치고, 가파른 경사를 하고 있는 계단 300여 계단을 오르는 중턱에서 손가락으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자기마을 풍경을 그리는 청년을 만날 수 있었다. 주민들이 즐겨먹는 Palm sugar 채취하는 기관지 질환에 좋다는 음료를 오름 중턱에서 사서 마실 수 있어 갈증이 해소되었다.

장미화원에는 첫사랑의 달콤한 봄 향기도 있었고, 여름 열정에 취했던 젊은 시절도 있었고, 디딤 돌 밭걸음으로 가을 낭만 쫓는 유랑자도 만났으며, 채워지지 않는 배고픈 탐욕도 승화되는 그런 곳이었다. “까모장 발전소”는 지열(地熱)을 이용하는 발전소이다. 활화산 까와 까모장(Kawah Kamojang) 분지에 올라서면 굵은 증기 배관들을 목격할 수 있으며, 여기저기에서 하얀 수증기 같은 연기를 볼 수 있었다.



증기 기관차 고동소리로 하늘 높이 하얀 증기가 치솟는 기차 분화구(Kawah Kereta Api) 주위에는 약 20개가 넘는 분화구가 있다. 그 중 4개의 큰 분화구는 반동의 “땅꾸반 뿌라후(Tangkuban Perahu) 화산과도 비교 할 수 없을 정도로 힘차게 분출하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온 힘을 다하여 기차분화구의 위력을 보여주며 이 분화구의 위대함을 자랑하던 중년 노인네가 인상에 남는다.



마지막 날, 드디어 짜위데이(Ciwidey)에 위치한 천사가 하강했다는 전설이 있는 옥빛 유황 분화구, 까와 뿌띠(Kawah Putih)에 도착하였다. 신이 물감을 풀어 놓은 듯 옥빛의 신비를 보여 주는 까와 뿌띠는 아무리 감정이 메마른 사람이라도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곳이다. 해발 고도 2,500m 빠뚜하 산(Patuha)에 위치한 까와 뿌띠는 해발고도 2,434m이다. 분화구 주변의 하얀 모래는 마치 옥구슬이 쌓여 있는 것으로 착각되며, 이 옥빛 분화구를 “하얀 분화구” 라고 부른다. 네덜란드 식민지 시절과 일제 강점기 때에는 이곳 유황으로 많은 약재를 만들었던 동굴도 보인다. 다음 장소인 지독한 사랑 이야기가 있는 연인들의 장소인 “시뚜 빠뎡안” (Situ Patengan: “그리움에 서로를 찾는 호수” 라는 뜻)으로 향하였다. 가는 길에 안개 속에 끝없이 차밭이 펼쳐진다. 시뚜 빠뎡안은 자연호수로 하트 모양이다. 호수에는 작은 섬이 있고, 섬 가까이 있는 바위는 “사랑의 바위” 로 불린다. 못 다한 사랑을 영원으로 승화하여 지금도 많은 연인들이 찾고 있는 데이트 장소이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버스 속에서 팀원들은 여행 탐방지에서 받은 정기로 인함인지 피곤함 기색도 없이 소감을 말하며, ‘여행은 언제나 좋다.’ 는데 모두들 동의하였다.

이번 여행을 같이 한 회원들은 인테리어 시장조사 나온 꽃미남 부부, 인니에서 18년 간 살다가 한국에 대학유학 중인 엄마와 같이 온 대학생, 인니교육과 연계하려고 온 교육 사업가이신 멋쟁이 언니, 대기업송사를 맡아서 하였다는 로펌 몬로

언니, 양철성님의 대한 ‘적도에 묻히다.’ 를 읽고 그 감동으로 탐방 길에 나섰다는 여교수님. 그리고 춤 시위와 악기연주를 뽐낸 국어 선생님, 대학 시절 시국시위 했다는 시민운동가, 인니에서 몇 십 년을 살고 있는 피꼬리 언니, 막내둥이를 떼어 놓고 온 젊은 어머니, 결혼 후 남편 곁을 처음 떠나왔다는 어머니, 이번 탐방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신 의사이자 작가 그리고 사업가이신 이동균 사장님, 모두들 소중한 귀한 분들이었다. 그리고 사공원장님, 안미경 수석팀장님, 조은숙 선생님의 헌신적인 마음 감사합니다.

사람 마음에도 햇볕을 쬐이고 바람을 쏘이며 마음의 빗장을 살포시 열어 옥빛 내음새로 가득 담는다. 몸치장 빈곳 찾아 머무는 허리띠 두른 고은아름 열도(列島)에 부드러운 손길이 햇살로 비누질하고 바람 구름 강 호수 화산 분화구로 때 묻은 몸뚱이 씻고 들, 풀꽃 향수로 따스한 마음은 바람방울 마중물 되었다.

노란 파랑 빛이 녹색을 다 전할 수 없어 마음은 호수에 머문다. 하늘 구름과 호수에다 사랑 전설의 허상을 실질적 욕망으로 풀어본다.

참으로 내 몸 한 부분 들려 놓을 수 없기에 그대 산머리 산마루 등성이 아래 머무는 행복한 여행자가 되나 보다. 그래서 아직 찾지 못한 머물 곳을 찾아 길을 떠나야 하리라.

자바의 스위스 가룻, 짜위데이에서.....

참고서적: 서부 자바의 오래된 정원 (사공 경 지음)



"나는 외대부고로 간다!"



# 세계와 하나되는 외대부고 글로벌 캠프

## HAFS Global Camp

- 기간 / 장소** 2017년 6월 20일(화) ~ 7월 17일(월)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용인)
- 대상** 8학년 ~ 11학년
- 프로그램** Literacy Quotient, Numeracy Quotient, Essay Quotient, Grammar, Career Counseling, College Consulting, Personal Essay, Reading & Discussion 등  
\*자세한 프로그램 및 시간표는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모집기간** 2017년 2월 13일부터 선착순 마감
- 지원방법** 캠프 홈페이지 [www.hafsglobalcamp.com](http://www.hafsglobalcamp.com) 회원가입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문의전화** 031-324-0015 또는 070-4616-0393,  
e-mail : [globalcamp@hafs.hs.kr](mailto:globalcamp@hafs.hs.kr)

외대부고 글로벌 캠프는 전 세계 25개국 한인 학생이 참가한 캠프입니다.

미국, 중국, 일본, 캐나다, 독일, 프랑스, 러시아, 베트남, 쿠웨이트, 멕시코, 인도, 모나코, 몽골, 인도네시아, 필리핀, 요르단, 파나마, 말레이시아, 대만, 싱가포르, 이집트,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2017학년도 서울대 합격자수 75명, 인문계 전국1위(16학년도 79명 전국 1위)! |

하버드 포함 26건의 아이비리그 대학 합격, 69명이 201건 해외대학 합격 실적! | 국내 / 해외 명문대 진학률 1위!

## 제 5회 자카르타 국립박물관 유물 해설 전문가 교육 안내



Indonesian Heritage Society

인도네시아 헤리티지 소사이어티 코리안 섹션에서 국립박물관  
유물 해설 전문가 5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 교육일정 : 2017년 4월~ 6월 (총 14회 진행, 모든 일정 변경 가능)

▷ 헤리티지 회원가입이 필수입니다. 가입비 45만루피아 (교재비 별도)

♣ 찬란한 인도네시아의 문화와 역사를 함께 공부하실 분을 찾습니다.

교육과정 수료 후 공식수료증을 수여하며 국립박물관 해설 전문가로 봉사하게 됩니다.♣

신청 접수: [2babis1004@hanmail.net](mailto:2babis1004@hanmail.net)

메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댓글에 성함과 전화번호, 카톡아이디,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참가자 첫 모임은 4월 4일(화) 9시 국립 박물관입니다.

Indonesian Heritage Society Korean Section

\*결석에 대해선 다음 시간에 보충발표로 진행함.

일상에서 부딪히는 법률 상의 궁금증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풀어보자

## 형법(KUHP)상 일반적 고소(Laporan)와 친고죄 고소(Pengaduan)의 비교



저는 6개월전에 사업상 파트너인 현지인 Komisarior로부터 업무상 횡령죄(Pasal 374 KUHP)로 고소를 당하여 자카르타 남부 경찰서에 두번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후 고소 인척과 합의하여 횡령한 돈을 전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3차 소환장을 받고 어제 남부서에 갔더니 피의자 신분(Tersangka)이 되어 있었으며 다시 경찰 조사관(Penyidik)으로부터 피의자 조서(BAP) 작성을 받고서 돌아왔습니다.

고소인척과 합의 후 합의를 경찰서에 제출했어도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변경되어 고소 절차가 계속 진행될 수 있나요?

맞습니다. 귀하는 피의자 신분으로 격상되어 검찰로 송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도네시아 형법상 횡령죄는 친고죄의 불법행위(Delik Aduan)가 아닌 일반 불법행위(Delik Biasa)에 해당하여 비록 고소인척과 합의후 고소를 취하했다라고 수사기관의 판단에 의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소인척의 고소 취하는 완료된 범죄 행위를 소멸시키는 역할을 못하며 단지 수사기관 또는 사법기관의 심리에 참고만 될 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경찰 수사단계에서 참고인(Saksi) 신분으로 피소환시 즉시 고소인척과 합의 후 고소 취하를 받아 내야하며 고소 취하 후 경찰서로부터 SP3 (수사 종결 지시서=일종의 무혐의 결정서)를 받아서 보관해야 만약 고소 절차가 잘못 계속 진행되어 Tersangka(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더라도 그 SP3 서류로 방어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인도네시아에 와서 작은 제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의 지속작인 상승으로 어쩔 수 없이 2년전에 증부자와 스마랑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주말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전에 갑자기 바이어 미팅으로 평일에 자카르타를 방문하여 미팅 후 귀가 하였는데 집에 중국계 인도네시아 남자(기혼자)가 방문하여 있었습니다.





Q

그 이후 아내의 행적이 의심되어 뒤를 밝아서 결국 아내의 불륜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그 남자의 지속적인 접근으로 본의 아니게 사고를 저질렀다고 눈물로 호소하며 용서를 구하여 불륜의 단초를 제공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만 사법기관에 처벌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모두 아시듯이 한국은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 선고로 형법 제 241조 간통죄는 즉시 효력을 상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인도네시아 형법 제 284조 간통죄(Perzinahan)는 아직도 유효합니다. 귀하의 아내와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이 저지른 간통죄는 귀하 또는 중국계 인도네시아인의 아내가 고소를 제기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가 있는 친고죄(Delik Aduan)에 해당합니다.

A

친고죄의 종류에는 절대적인 친고죄(Delik Aduan Absolut)와 상대적인 친고죄(Delik Aduan Relatif)가 있는데 인도네시아 형법 제 284조인 간통죄는 절대적인 친고죄로서 귀하가 원하듯이 아내는 용서하고 중국계 남성만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Tidak dapat Dibelah). 귀하께서는 간통 당사자인 두 사람을 전부 고소하든지 아니면 둘 다 용서를 해야 합니다.

**Tips 1.** 한국에서의 고소와 고발의 차이점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제기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고소권을 가진 사람, 즉 피해를 입은 당사자 또는 가족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가해자 처벌을 요청하는것이 고소이며 고소권이 없는 제 3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범죄자 처벌을 요구하는것이 고발입니다.

**Tips 2.** 인도네시아 형법에서 한국적인 개념의 고소와 고발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인도네시아 용어는 아직까지 찾지 못하였으며 경찰서에 피해자 본인이 하든 아니면 제 3자가 하든, 고소와 고발을 구별하지 않고 Laporan Polisi란 용어로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친고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는 상기에서 설명하였듯이 Pengaduan이라는 용어로 구별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고죄는 불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고소권자 국내 거주시) 또는 9개월 이내(고소권자 국외 거주시)에 고소를 제기해야 하며 만약 고소를 취하시 고소 제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하를 해야 검사가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단지 간통죄의 경우 사법부의 1차 공판 전까지라는 예외가 있습니다.

작성 : 김종성 (대표 Partner)  
법무법인 인도양 (Indoyang & Partners)  
cskim@indoyanglaw.com

## 2017년 개인외비 및 불우이웃돕기성금 납부 명단

(납부일 순)

번호	성명	금액(IDR)	비고
1	송지나	600,000	2016/2017
2	최석일	300,000	2017
3	김일태	300,000	2017
4	김의용	300,000	2017
5	김은섭	300,000	2017
6	김영섭	300,000	2017
7	천상연	300,000	2017
8	박동규	300,000	2017
9	손진헌	300,000	2017
10	신성철	300,000	2017
11	윤예슬	300,000	2017
12	강희중	300,000	2017
13	김문환	300,000	2017
14	황윤홍	300,000	2017
15	강덕재	300,000	2017
16	황정희	300,000	2017
17	정순	300,000	2017
18	김연진	300,000	2017
19	임호경	300,000	2017
20	임동진	300,000	2017
21	박인근	300,000	2017
22	강의주	300,000	2017
23	송재선	300,000	2017
24	길병완	300,000	2017
25	장근원	300,000	2017
26	이현상	300,000	2017
27	이상일	300,000	2017
28	김우진	300,000	2017
29	김영만	300,000	2017
30	김영욱	300,000	2017
31	김종희	300,000	2017
32	김희익	300,000	2017
33	안윤근	300,000	2017
34	손한평	300,000	2017
35	양영연	300,000	2017
36	이중후	300,000	2017
37	박재한	300,000	2017
38	이호덕	300,000	2017
39	배응식	300,000	2017
40	김준규	300,000	2017
41	황의상	300,000	2017
42	박태용	300,000	2017
43	김주철	300,000	2017
총 금액		Rp13,200,000	

# 개인도네시아안인회 2017년도 임원찬조금 납부 명단

(입금확인일: 2월 28일까지)

번호	구분	성명	회사명	금액	
				USD	IDR
1	회장	양영연	PT. TAEWON INDONESIA		266,000,000
2	고문	배도운	PT. DOOSAN CIPTA BUSANA JAYA	5,000	
3	부회장	장근원	PT. TRIPILLAR MEDIS JAYA		67,500,000
4	부회장	김우진	PT. SAMINDO ELECTRONICS		50,000,000
5	부회장	김준규	PT. CIPTA ORION METAL		67,000,000
6	자문위원장	구종율	PT. JASINDO DUTA SEGARA		27,000,000
7	자문위원	강덕재	PT. LEMBUSWANA PERKASA	1,000	
8	자문위원	김영만	PT. BATAVIA CHEMTEK		13,500,000
9	자문위원	김영욱	PT. GAYA INDAH KHARISMA		13,500,000
10	자문위원	송재선	PT. PUTRA HANKUK		13,500,000
11	자문위원	이현상	PT. ROYAL KORINDAH		13,500,000
12	이사	길병완	PT. DAEYOUNG DUNIA SUBUR		13,500,000
13	이사	김경곤	PT. SUKWANG INDONESIA		13,500,000
14	이사	이상득	PT. IL JIN CHEMICAL INDONESIA	1,000	
15	이사	이상일	PT. UNGARAN INDAH BUSANA		13,500,000
16	이사	이정휴	PT. GEE SAN INDONESIA		13,500,000
17	이사	이준하	PT. DAELIM INDONESIA	1,000	
총 금액				\$8,000	Rp.585,500,000

**KANA 가나 RESTOLOUNGE**

**케터링 (Catering Service)  
퀵 도시락 (T/A)**



가나는 여러분이 원하는 곳까지 찾아가는 서비스 케터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0인이상 맞춤형 이벤트 환영  
돌잔치, 집들이, 골프모임, 피로연, 동문회 등**

메뉴 : 불고기, 잡채, 모듬전, 샐러드류 한방 갈비찜,  
김밥, 초밥, 수육, 떡볶기, 새우요리 및 시푸드 등의 전통 한정식  
디저트 : 식혜, 수정과, 콕탈(화채), 모듬떡, 시즌과일 등등.

Landmark Bld. Ground Floor. Jl. Jend. Sudirman Kav.1 Jakarta  
Phone 2520077, 5710909 (KIM MI YOUNG 0811 918 132)

## [안인외 외비 납부 안내]

개인회비는 가구당 매년 Rp. 30만 입니다.

한인회비 납부를 통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재원 마련에 한인 동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재인도네시아 한인동포여러분!

재인도네시아 한인회는 실명 위기의 김모씨(53세, 끌라빠가당 거주)에게 눈수술을 위한 수술비를 지원 하였습니다. 한인회는 김모씨가 2016년 8월9일 출국하여 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인구조단(사단법인 월드쉐어)과 연계하여 도움의 손길을 베풀었습니다.

이렇듯 한인회비는 어려움에 처한 한인동포들을 돕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재인도네시아한인회장 양영연 배상

### <보내실 곳>

	BANK WOORI SAUDARA INDONESIA	BANK KEB HANA INDONESIA
계좌번호 (루피아)	Rp. A/C NO: 100-913-000-538	Rp. A/C NO: 220-200-5949
예금주	ASOSIASI KOREA	YAYASAN ASOSIASI KOREA

## 외원증 발급

회원이 되신 분(기 납부하신 분 포함)께 회원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처: 한인회 사무국 021 521-2515



**한국인 취업 안내**  
 JAC는 현지 한국인 취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희망자는 아래 메일로  
 CV(영어/ 한글) 송부바랍니다.

## 유능한 현지 인재 채용 ... 정말 어려우시죠?

-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 채용 (중간관리자, 마케팅, 인사, 회계, 법률, IT 및 임원급)
- 회사/사무소 설립, 노동허가(KITAS) 외 각종 인허가, BKPM신청부터 원-스톱 토달서비스
- 외국기업· 사무소 회계 세무 대행, 단기간 직원파견, 회사설립 전 직원고용계약 대행(EWE)

**Korean Desk**  
 Tel: 021- 315-9504, 9506 (영어/인니어)  
 Mobile: 0878-8042-9794 (한국어)  
 E-mail: koreandesk.id@jac-recruitment.com  
 www.jac-recruitment.co.id

본점 : Menara Cakrawala 18 Fl. Jl. MH. Thamrin No. 9 Jakarta / 지점 : Bekasi, Karawang, Surabaya

### •주요기관

한국대사관	2967	2555
영사과	2967	2580
주아세안대한민국대표부	2967	2570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574	1522
한국국제협력단 29921900,29922100-1		
코리아센터빌딩	525	6525
한국산업인력공단	527	2612
자카르타한국문화원	2903	5650
한국관광공사자카르타지사	5785-3030	
중소기업진흥공단	5292	1302

### •한인단체

재인도네시아한인회	521	2515
한인회 비상연락전화	0812	1960 308
한국국제부인회	0817	110 234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KOWIN)	081511708882	
한인니문화연구원	0816	1909 976

### •한인잡지

한인뉴스	521	2515
교민세계	739	9025
여명	9955	5859

### •교육기관

한국국제학교 (JKS)	844	4958-61
간디국제학교	690	9902
뉴질랜드국제학교 (NZIS)	7884	1226
싱가폴국제학교 (SIS)	7591	4414
(끌라빠가딩)	460	8888
영국국제학교 (BIS)	745	1670
자카르타국제학교 (JIS)	750	3640
북국제학교 (NJIS)	453	1001
호주국제학교 (AIS)	782	1141
일본학교 (JJS)	745	4130
네덜란드국제학교(NIS)	782	3929

독일국제학교(DIS)	537	8080
TAIPEI 국제학교(JITS)	452	3273
SPH (땅그랑)	546	0234
(찌까랑)	897	2786
RICS	7590	3342
헤리티지인터네셔널(HIS)	08129712306	
LYCEE Int. FRANCAIS	750	3062
JIPS	3004	2885
JIMS	744	4860
PAKISTANEMBASSYSCHOOL	3904137	
ACG 국제학교	780	5636
ICSCE	780	7313
익투스크리스천국제학교	7590	8820/50

### •유치원

KIDS Island	765	6588
Bambino (위자야)	720	3356
(빠뜨라 꾸닝안)	8378	3783
사랑	835	1540
성모	7884	2467
하나	844	5283
리틀램스쿨(자카르타)	750	0739
(끌라빠가딩)	471	8047
(땅그랑)	558	7227

### •골프장

BOGOR RAYA	0251	827 1888
CENKARENG	5591	1111
CILANGKAP	8459	5687
CIKAMPEK	0264	317 007
DAMAI INDAH [BSD]	537	0290
EMERALDA	875	9019
GADING RAYA	546	7668
GUNUNG GEULIS	0251	825 7500
HALIM 1	800	5762
HALIM 2	809	0729
IMPERIAL	546	0120

**마타아리 여행사**  
 소장 정연승  
 T. 521 2212 H. 081 888 5353  
 E. yunisarah@naver.com

**terior**  
 Creative Human Space  
 사무공간  
 주거공간  
 상업공간  
 Darmawangsa Square Citywalk 3rd Floor Unit 62-63  
 Jl. Darmawangsa VI & XI, Jakarta Selatan 12160  
 Tel : 021-7278-0704 Fax : 021-7278-8330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강남렌트카**

0811-9409-632  
0812-1097-631

JABABEKA	893 6148
JAGORAWI	875 3810
KAPUK	588 2388
KARAWANG	0267)405 888
KEDATON	5930 0000
KEMAYORAN	654 1156
KRAKATAU	0254)372 030
LIDO	0251)822 1008
MATOA	787 0864
MODERN	552 9228
PALM HILL	8795 4307
PANGKALAN JATI	751 3326
PERMATA SENTUL	8795 1787
PONDOK CABE	740 5385
PONDOK INDAH	769 4906
RAINBOW HILL	0251)827 2111
RANCAMAYA	0251)824 2282
RAWAMANGUN	475 4732
ROVER SIDE	867 1533
ROYAL JAKARTA	8088 4488
SAWANGAN BARU	740 2194
SEDANA	0267)644 730
SENTUL HIGHLAND	8796 0266
TAKARA	599 1227

### ●골프교습

Easy Golf	801 2048
골프투어 & 골프아카데미	392 178
골프투어 자카르타	7013 8166
심스골프	570 3063
배준원골프교실	781 7679
PGA골프레슨(까라와찌)	5577 8936
골프투어&골프아카데미	0811 143 437

### ●골프샵

교민프로골프샵	5577 1006
따만사리골프샵	546 0838
레네세계골프	739 8312
한양(골라빠가딩)	450 4364
EFC Golf	725 0057
혼마플레이골프	344 2540
MFS골프	725 0057
Play Golf	722 9587
월드	552 7434
Bridgestone Golf	7279 8123
Love Green Halim	8778 2771~2
Love Green Cikarang	8990 7881

### 동문회

#### ●중/고교

강경상고(민병무)	0818 879 149
경기고(구본찬)	780 0204
경남공고(이봉규)	0812 902 3800
경남중고(정낙현)	0813 8293 8557
경동고(강성원)	0812 8830 8566
경북고(노경인)	0815 1901 0575
경북고(이병수)	0816 181 3615
경성고(박영권)	0813 8805 1296
경신고(김진태)	7883 6372
경주중고(김홍규)	0818 141 635
구미 전자공고(이원규)	0815 1428 9329
계성고(최상록)	0811 249 038
광주고(선홍규)	0813 1536 5223
광주 사레시오중고	548 5112
광주 서중일고(이용하)	527 0150
광주 금호고	0815 1903 5802
남성중고(임석균)	515 9277
대구고(김현철)	0818 718 535
대구대륜고(노태진)	0816 835 185
대구 상고(김진우)	825 0581
대구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대광중고(이민규)	0816 880 018
대원외고(권기훈)	0877 7779 4668
대전고(윤내선)	426 2954
덕수상고(정천수)	0816 114 7364
동대문상고(곽기석)	867 3837
동래고(박형남)	0815 1906 0877
동성고(홍창형)	0812 102 2670
동아고(여병철)	0811 187 554
동인고(차명훈)	0815 950 0461
마상고(김만수)	0811 122 5239
목포중고(김용진)	568 0517
배재학당(이성수)	0815 1428 0295
배정고(김상훈)	0817 659 9473
보성고(김유호)	5940 1282

한인뉴스는 생활정보란의 전화번호를 업데이트하고  
자 합니다. 전화번호 게재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단체  
및 업체는 2월, 3월 두 달간 한인뉴스로 연락을 주  
시기 바랍니다. (Telp. 021-521-2515)

보성교우회(박지배)	0811 976 537
부산기고(채윤규)	026 751 2483
부산 동고(이동훈)	0811 190 7967
부산상고(박갑수)	0812 952 5404
부산 중앙고(송명석)	0811 834 412
부산고(조명국)	0811 1046255
부산 외고(선진세)	0813 8536 8434
서울고(신균)	0811 157 450
서울대신고(서영석)	0813 1139 7145
선린상고(김기석)	0817 648 9321
성남고(성기채)	0815 1070 2424
성동고(구본욱)	025 161 1466
성원고(강변창)	0811 891 458
수원 유신고(안성욱)	0813 1626 7777
순천중고(김정욱)	0815 1932 9650
송문고(김영언)	0816 937 269
신일고(금민철)	0816 864 677
심인고(김종필)	0815 1305 4150
안양공고(조한영)	0812 859 8483
양정고(이종환)	0815 1033 1001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등포고(정하승)	0811 140 334
오산고(조동혁)	0815 7432 7769
용산고(박승래)	0813 1842 1269
유한공고(이선용)	0812 071 210
인천중/제물포고(한승도)	0818 912 698
여수고(유병관)	0818 479 862
영남고(오승현)	0858 4653 6899
전주고(남택열)	0811 877 108
정석항공고(백승엽)	0811 903 144
중동고(최무중)	0811 8532 0354
중앙고(정재익)	0811 910 013
진주 대아고(김영진)	5522 0041
청주고(조영선)	0815 1901 4477
충남고(이수현)	0811 175 126
한성고(박창화)	0816 780 751
해광고(서동희)	0813 9839 9286
휘문고(맹중호)	0818 973 986
<b>• 대학교</b>	
강원대(송영석)	0812 1326 5977
건국대(조선용)	0811 910 6707
경기대(인기상)	739 7625
경북대(김규식)	0816 182 3748
경희대(양승민)	0811 164 367
계명대(백성영)	871 2371
고려대(이광수)	0813 8026 1353
공군사관후보생(김기정)	0817 918 7100
부경대(이제원)	0812 968 9797
동국대(염정윤)	0817 681 8599
동아대(서준근)	0811 850 212
목포해양대(이종재)	0811 975 205

부산대(유제상)	0811 841 510
부산외대(이동훈)	0816 781 564
서강대(이철우)	0812 1177 399
서울대(정무웅)	797 5959
성균관대(김진태)	0818 953 949
숙명여대(서영자)	0815 1324 2799
숭실대(김학수)	0811 879 701
아주대(서보상)	0815 1902 4220
연세대(금민철)	0816 864 677
영남대(김상수)	0812 103 8707
영산대(최재혁)	590 0401
울산대(최재호)	723 0917
이화여대(김미승)	0811 122 0566
인하대(이기홍)	0816 812 507
전남대(최병욱)	0816 188 1233
전북대(최성호)	0815 7232 3689
중앙대(손동근)	0811 844 247
충남대(노제익)	452 6968
충북대(최병인)	0817 778 857
한국외대(신성철)	0818 936 943
한국해양대(이승준)	0811 190 7718
한양대(임영석)	0811 944 338
ROTC(사무국장: 김성일)	0811 805 606

• 은행

수출입은행	525 7261
KEB 하나은행 본점	522 0223
우리소다라은행 본점	2995 1915
신한은행	2975 1500

• 종교 단체

<기독교>

꿈이있는교회	548 3044
늘푸른교회	766 9191
동부교회	4587 7317
연합교회	7279 5625
예사랑침례교회	4176 5140
소망교회	739 6487
순복음교회	739 2373
안디옥교회	751 5525
열린교회	844 5537
위자야한인교회	7279 3145
자카르타사랑의교회	450 7324
주님의교회	831 3843
중앙감리교회	533 2749
찌카랑임마누엘교회	8990 3133
참빛교회	718 3535
한마음교회	739 5035
한인성요셉성당	7884 3782
(찌카랑 공소)	8911 7547
불교>조계종 능인정사	724 7261
조계종 해인사 인도네시아	765 6036

woori

## 우리컨설팅

정직 · 성실 · 전문성의 우리컨설팅이 함께 합니다  
투자/법인/인허가/비자/채용/부동산/리서치

Tel : 021-7918-4239 | HP : 0811-146-3700  
Email : master@woori-consulting.com

URI TOUR & TRAVEL

## 우리투어

Tel : 021-794-0422 / 021-7919-9201  
HP : 0811-1742-081 / 0815-4609-7209  
Katalok ID : uritour88  
Email : master@uritour.org

www.doowang.net

## DOOWANG과 함께 가면 먼 길도 가까워 집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돌아봅니다.  
고객은 나의 가을이요 진정한 스승이십니다.  
한분 한분의 스승을 만나기 위해  
나를 가다듬고 精과 誠과 禮를 다해 찾아뵈겠습니다.

고객을 위해 바르게-

**DOOWANG Consulting**  
Since 1994

Graha Surveyor Indonesia, 19<sup>th</sup> Floor Suite 1901  
Jl. Jend. Gatot Subroto Kav. 56, Jakarta 12950  
Tel. (62-21) 2941-0780 (hunting) | Fax. (62-21) 2941-0775  
Mobile: 0811-953607 | www.doowang.net  
E-mail: lsw@doowang.co.id | leesowang@gmail.com

## 항공권 · 호텔 · 관광 · 비자

### 로데미와 함께하면 즐거움은 배가 됩니다

**RODEM TOUR**

Tel: (021) 4587 8833 Fax: (021) 293 64168  
HP: 0812 967 8131  
E: rodemtours@naver.com  
rodem\_tours@cbn.net.id



Law Firm  
**INDOYANG & PARTNERS**  
**법무법인 인도양**

강력한 변호사 팀 / 확실한 법적 해결

김 중성 (대표 Partner) : UI대 법대졸, 법대 대학원  
 HP : 0815-8690-3000 Email : cskim@indoyanglaw.com 또는 cskim.indoyanglaw@gmail.com  
 Korea Center Building, Suite 605 Jl. Jend. Gatot Subroto Kav. 58  
 Jakarta 12950, Indonesia Telp : 62-21-5273077 / 8 Fax : 62-21-5207212

(동부자바포교원) 0818 333 491  
 법연중 법연원 720 8607  
 조계중 고려정사 724 3571  
 이슬람>한국이슬람 인니지회 871 6906

●가구

쥬지언 퍼니처 766 0364  
 아이니갤러리 581 4690  
 울맷티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건강식품/건강원

COCOON(일동제약인니지부) 520 7662  
 경동건강원 7028 4262  
 고려건강원 081 690 3990  
 부아메라 0816 1854 58  
 한국건강원 5579 6411  
 황소건강원 5576 7628  
 진영삼봉나와 8234 565  
 솔진생코리아 7278 8287  
 클로렐라 470 4280  
 이롬황성주생식 5296 1522

●국제전화 서비스

글로벌링 725 1606  
 넥스텔링크 525 3187  
 데이콤 720 7551  
 킹폰 574 0888  
 현대 텔레콤 5579 1226  
 Hallo Phone 5290 0233

●건설 / 설비 전기

DASOM indonesia 2940 3042/5  
 건설 중장비 렌탈 08111 43437

●꽃/화환

꽃과 좋은날 0811 846 174  
 난 이야기 0812 913 1355

에셀꽃집 0816 733 810

●기타

바틱하우스 0816 770 143  
 마음수련 722 1600  
 바람소주 0858 8831 1218  
 스폰지 7095 4771  
 아시아 진주 7278 8327  
 Good Deal Gallery 573 6233

●노래방

팡팡노래방 & 치킨 720 7275  
 Beat Box(골라빠가딩) 9773 4780  
 IDOL가라오케(땅그랑) 021 546 0840

●렌트카/기사클럽

강남렌트카 081 2109 7631  
 서울렌트카 6870 9335  
 우리렌트카 081 119 3069  
 한성렌트카 889 0471  
 짱구기사클럽 7279 8233  
 링크렌트카 9583 1000

●미용실/피부관리

갤러리 J 725 2856  
 국제미용원 739 6129  
 뷰티 # 520 4428  
 스킨미용실,피부관리실 547 5867  
 아마란스화장품 723 1537  
 JR SALON 7279 7906  
 퀸덤 7279 2067~8  
 Hair Perm 7280 1404  
 닥터큐(피부미용) 5696 7090  
 자르헤어 7279 6998  
 Salon & Beauty Shop 7278 6969

●변호사 사무소

이승민 법률사무소 525 5959  
 법무법인 P.Y.L 527 2422  
 P.A.K. 변호사사무실 797 6254  
 이소왕 변호사 사무소 520 7153  
 K LAW 변호사 사무소 5785 3271  
 법무법인 인도양 527 3077

●부동산

그린 부동산 726 4949  
 2005뉴밀레니움 7082 0056  
 리츠부동산 6896 7249  
 대한부동산 0813 1447 6593  
 한국부동산 0811 876 204

●방송사

K-TV 525 2922  
 OKTN(KBS World) 797 6151  
 KABLE VISION 527 8811  
 INDOVISION 581 9988

●병원

관준한의원 722 7745  
 뉴월드메디칼 7279 3809  
 보청기센터(Hearing Vision) 7280 1819  
 실로암 한의원 720 1779  
 서울메디칼 크리닉 799 1333  
 신농서한방병원 7278 0563  
 아름다운 병원 720 7628  
 아리따움 치과 /피부과 725 3458  
 향림당 한방병원 720 7727  
 RS. BUNDA 322 0005  
 RS. GRAHA MEDIKA 530 0887  
 RS. MEDISTRA 521 0200  
 RS. M.M.C 522 5201  
 RS. PONDOK INDAH 765 7525  
 RS. Siloam (땅그랑) 546 0055  
 RS. Siloam (찌까랑) 8990 1911  
 Matahari Klinik 722 6391  
 Dokter Korea 0815 8539 7777

●슈퍼마켓

뉴서울슈퍼 725 0520  
 뉴부산슈퍼(땅그랑) 5940 0375  
 만나슈퍼(버까시) 821 8705  
 무궁화슈퍼 722 2214  
 무궁화(땅그랑) 558 2214  
 무궁화(골라빠가딩) 453 3624  
 무궁화(찌까랑) 7075 2214  
 무궁화(다르마왕사) 723 3214  
 서울마트(가라와찌) 546 0844  
 서울슈퍼(골라빠가딩) 450 4364  
 우리슈퍼(버까시) 8240 4575  
 월드마트 8430 2535



2016년 한인 문예총

<회장단&집행부>

사공경 회장	0816 1909 976
강희중 고문	0816 798 221
이일하 부회장/기획/ 음협 회장	0811 9103 108
신돈철 부회장/전시/ 미협회장	0878 5480 4815
박형동 부회장/공연/ 한바패회장	0811 149 586
이수진 부회장겸 사무국장/ 헤리티지회장	0816 1300 210
채영애 감사/아르떼 여성합창단 단장	0816 745 384
허민경 사무차장/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0812 1316 2064
<협력단체장>	
서예협회장 : 양승식	0811 111 363
루시플라워 회장 : 최정순	0811 834 026
미술협회 회장 : 신돈철	0878 5480 4815

문인협회 회장 : 서미숙	0812 8178 050
한바패 회장 : 박형동	0811 149 586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 안영수	0811 9005 639
색소폰동호회 회장 : 박의태	0811 876 547
헤리티지(코리안) 회장 : 이수진	0816 1300 210
국악사랑 회장 : 장방식	0811 902 003
월화차 회장 : 이춘순	0878 8333 3359
음악협회 회장 : 이일하	0811 9103 108
아버지양상블단장 : 변영극	0815 9101 898
아르떼 여성합창단장 : 채영애	0816 745 384
스트링 오케스트라 단장 : 허민경	0812 1316 2064
<촉탁전문위원>	
* 안선근 : 현지단체교류	0816 883 223
* 최석일 : 문화컨텐츠	0818 901 609

하나마트	8459 0064
한일마트	723 2086
한일마트(땅그랑)	5577 8633
G-마트(찌부부르)	8459 9858
K-마트	2277 5526
위자야마트	726 9049

•식당

하나	0254-393 2146
가나레스토랑	0811 918 132
가야성	725 7373
가호(SCBD 점)	5289 7044
강남	0812 2323 5119
강남스타일	2952 8443
고주몽	7279 6709
	8984 1000
김군 고기고기	726 4999
김삿갓	722 2230
대가	8459 2871
대감집	720 7530
대화	720 6091
락	5793 9211
마포	7279 2479
맛집칼국수	0821 1096 3483
명가면옥	0254-849 3571
면의전설	521 0230
명가면옥	2751 0800
미가	0818 85 8026
미스터 박	5140 1142
버까시 서울	8895 7604
베다니1호점	9318 0458
베이징	0254-837 0242
보신명가	789 0220
	0254-848 4111
본가	739 6229
삼원가든	2988 9505
설악추어탕	722 1852

소래포구	8990 5051
씨티서울	5289 7506
아랑22	5140 1245
아리정	739 6549
우장군	725 6181
유미	720 7464
청기와	726 1924
청담가든	0815 7342 5802
청해수산	527 8721
토박	725 1135
하누	725 5042
한강가든	0813 1988 5751
한솔	5290 3417
한양가든	2751 7370
이가네	6669 5500
한옥	0254-385 588
강산	2452 0569
깜닭	4584 5837
다미	4585 0040
대장금	0816 885 956
마포갈매기	0812 9313 9503
명가면옥	8990 4552
미스터 사시미	4585 3484
미추홀	6583 1472
산정(찌까랑)	2909 3454
(땅그랑)	547 3172
서울	4585 4454
설악추어탕	2937 5435
송가네삼계탕	4585 4422
야래향	4584 8476
황금밥상	4585 3402
감미옥	5579 4612
강나루	5576 8222
강촌	5579 3681
꼬꼬파리아	0254-39 4255
대가야	547 5511
명가면옥	552 2745

산들	5579 5821
상하이	5573 5550
서울일식	546 0840
아리수	0254-781 0059
알리사	0254-60 1430
오리랑장어랑	5577 6457
우리들	552 4047
조선민물장어	5573 3308
종가레스토랑	551 3273
청기와	0858 1377 3388
체어맨	5577 8585
태능갈비	7055 0888
테라스 가든	8493 9321
한마당	5577 6770

•신문

한국신문 종합대리점	520 7207
데일리코리아	725 7447
조선일보	2930 6886



**ICHTHUS SCHOOL**

*A Christian School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PRIMARY | SECONDARY | A LEVEL**



Open House: 25 Feb | 28 Apr 2017  
9am to 12pm

**Contact:**

South Campus: Jakarta Selatan T: +6221 7590 8820	West Campus: Jakarta Barat T: +6221 581 2228
--	--



[www.ichthusschool.com](http://www.ichthusschool.com)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중앙일보	7590	8308
한국일보	769	1081
한인포스트	4586	9199
타임인도네시아	5028	4996
JAKARTA POST	530	0476
자카르타경제신문	5290	0117

## ●안경원

눈사랑안경원	723	5360
시티안경원	726	5009

## ●여행사

나래여행	5296	0749
하나족자트래블	0274	887 488
굿데이투어	4586	0598
그린관광	798	3322
Red Cap	5797	3397
Rodem Tour	4587	8833
마타아리 여행사	521	2212
부미관광	7279	0011
비자여행 Malaysiaro	603	9274 1780
솔로몬투어	0813	1934 1000
싱가폴투어(비자)	2903	6647~50
스카이투어	391	1381
우리투어	794	0422
153 TOUR	5720	153
코리아트래블	230	3116
코인관광	720	7230
하나관광	520	2450
호산여행사	691	3602
HAPPY TOUR	532	7970
Inko Batam(바탐)	0778	462 500
사랑투어	2912	5099

## ●인니어통역/번역

Mrs. Lee	021	743 2687
CITRA	781	7771

## ●인터넷

HANASTAR INTERNET	2270	8282
S-Net	7080	7886

## ●인테리어

H2 Stuff	4586	7860
KJ건축 인테리어	0821	2564 1777
	7590	6767
Living A&I	7278	0704
로만인테리어	720	4851
아이니인테리어	0812	1928 5578
INNOMATE	7919	2006
올댓테크 원목가구	0858	8831 1218

## ●운송 해운 이삿짐

소명통관	4585	9283
센다이 이주화물	8770	6361
아네카 트란스	520	4181
트란스 우따마	829	6218
프라임 운송 인도네시아	5591	5770
페나스콧 로지스틱스	2902	3838
CARGO PLAZA	831	7779
DHL	7919	6677
FIRSTINDO EXPRESS	5296	0024
PANTOS LOGISTICS	8998	2855
HAES IDOLA CARGO	8591	8488
HANINDO EXPRESS	252	5123
KORNET LOGISTICS	8379	3455
QCN	7884	1550
Wings Global	4585	8053
ZIMMOAH	2937	5670
WIKASA	8379	1935

## ●자동차 정비소

벵켈 코리아 모터스	885	4034
------------	-----	------

## ●증권/보험

삼성화재	021	806 22000
우리코린도증권	797	6210
클레몽종합금융	797	6363
메리츠코린도보험	797	6242
키움증권	526	1326
KDB 대우증권	515	1140
KB손해보험	3199	0247
한화생명	727	88150

## ●컨설팅

럭키비자	0813	1133 2122
글로벌컨설팅	7280	0524
누비라컨설팅(리뽀찌까랑)	8990	0088
두왕컨설팅	520	7153
새천년컨설팅	5290	0040
우리컨설팅	7918	4239

컨설팅 21	799	6182
퓨릭컨설팅	5596	3213
한생컨설팅	5290	0670
KMAQA (ISO인증원)	573	1576
비엔시 컨설팅	2278	0470/4013
한국컨설팅	0811	876 204

## ●인재채용

JAC Recruitment	315	9504
-----------------	-----	------

## ●컴퓨터, IT

대인정보시스템	230	5533
레드망고(PC방)	4584	4186
리콤컴퓨터	725	1606
컴퓨터 원	5576	5228
지텍컴퓨터	5696	7001
하나로정보통신	9260	0950
한비텔	8379	1144
인도웹 www.indoweb.org	0811	888 9609

## ●택시

SILVER BIRD	798	1234
BLUE BIRD	794	1234

## ●하숙

경북궁하숙(리뽀찌까랑)	081314157581
가딩 홈스테이	9661 5877
간다리아게스트하우스	085814422900
갈릴리 게스트하우스	085813413222
갤러리 게스트하우스	081315149978
교민 하숙	0816 163 5558
나인비즈니스 하숙	9940 5005
동지 하숙	3608 9316
리뽀찌까랑 하숙	0812 1066 7757
레저 게스트하우스	0811 143 437
모나리자	8990 9570
모이하숙	0878 8515 1653
사랑채 게스트하우스	0813 8059 1625
세명 하숙	0852 1757 5525
세노파티코리안 하우스	0821 1336 1111
소망 하숙	0813 1724 9911
쉼터 하숙	726 8775
시내중심 게스트하우스	081517803680
이모네 하숙	0818 964 946
인다 게스트하우스	0822 6074 8228
엘지 게스트하우스	0812 100 7135
엘림 게스트하우스	0815 181 3122
위자야게스트하우스	081510248888
자카르타 게스트하우스	0817 127 887
풀하우스 게스트하우스	0811 888 9609
한밭	830 9990
한울타리	739 5841
한아름 게스트하우스	723 8302

현대 하숙	0818 795 787
한마음 게스트하우스	0813 8822 7783
BSD등불 하숙	0852 1985 1523
힐링 게스트하우스	0821 1427 5415

● 학원/교육업

대교인도네시아	5292 0911
마인드케어학습클리닉	546 4531
뮤직아카데미	08119103108
박학천논술	4586 7844
뿐독인다아카데미	7590 5773
에세드라이트스쿨(리뽀까라와찌)	546 4531
예원	720 8783
케이에듀인 한국어/유학원	2942 7062
종로학원	7883 5202
토마토미술	723 3699
	0817 9876 950
피카소어린이미술학원	0813 989 22222
하이스트학원	720 2022
해동검도	522 7204
해보다외국어학원	0888 843 0415

● 항공

대한항공 (시내)	521 2180
(공항)	550 2389
GARUDA (Call Center)	2351 9999
	0804 1807 807
아시아나 항공 (시내)	572 1381~3
(공항지점)	5591 3229
싱가폴 항공	570 4411

● 호텔

그랜드멜리아	526 8080
만다린	314 1407
물리아	574 7777
샹그릴라	570 7440
싸이드자야	570 4444
하야트	390 1234
크라운플라자	526 8833
솔탄	573 8011
GSI Hotel & Resort	0858 8248 3211
자바 팔레스	2928 1111

● 환전

굿-머니	5793 9990
그린환전소	0815 1423 0114
플라빠가징	453 1166
사강머니체인저	5290 0233
위나머니체인저	7278 0929
뚜나스신암	797 6105
참피온머니체인저	458 51158
환전	712 8556

## 창립 24주년 행사

아시아진주가 고객님의 사랑과 성원으로 창립 24주년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하고자 최상의 품질과 정직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다가가는 아시아진주가 되겠습니다  
**감사 특별 할인행사 : 2016년 12월 15일 ~ 2017년 2월 28일**



# 아시아 진주 Asia Pearls

**감사 특별 할인 및 한정 판매**  
 남양진주(10-17mm) 50점  
 다이아(3부-1캐럿) 10점






- ◆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진주 전 품목 수출 및 도매(한국 배달 가능)
- ◆ 정품 다이아(GIA) 판매 - 최대 93% 환매보장 ◆ 순금 매입·매각 가능
- ◆ 순금 가공 가능(회사로고, 행운의 열쇠, 골프공 등 원하시는 형태)
- ◆ 모든 셋팅물 새로운 디자인으로 재가공 가능 ◆ 결혼 예물셋트(다이아, 진주)

**갤러리(위자야센터 옆)**

Darmawangsa Square - City Walk Lt.1 No.28  
 Jl. Darmawangsa VI & IX Kebayoran Baru Jak-Sel  
 Tel. 021-7278-8327 HP. 0888-110-2022

**수출·무역**

HP. 0816-873-176, 0816-1390-333  
 E-mail. 3spearl@hanmail.net  
 +82-10-5256-6862, +82-10-9824-8857



▶▶▶

**한인뉴스  
광고문의  
521-2515**

**재인도네시아 대한체육회**

최 병우	0811-956-227	회장
강 희중	0816-798-221	검도협회장
곽 봉규	0815-410-4167	탁구협회장
김 송정	0816-716-293	볼링협회장
김 태화	0811-188-2938	스쿼시협회장
방 진학	0811-198-282	태권도협회장
배 응식	0811-965-2775	용무도협회장
이 광희	0811-998-186	축구협회장
정 성원	0817-785-348	테니스협회장
한 현봉	0811-111-5800	골프협회장
이 기홍	0819-812-507	사무총장
성기채	0815-1070-2424	사무차장

**발 리 (지역번호 0361)**

●항공		
대한항공(KAL)		768 377
●종교단체		
한인교회		462 222
●슈퍼마켓		
한국슈퍼마켓		281 929
●여행사		
B.J.C TOUR		284 365
BALI INDA TOUR		286 905
BALI DAMAI TOUR		764 864
BALI HARMONY TOUR(A)		744 1815
BALI STAR TOUR		868 8287
BALI TAP TOUR		860 4977
MANGOCAKE		745 4229
FIN DONGHWA TOUR		847 1966
DREMLAND TOUR		745 1961
DARMA BALI TOUR		848 0030
KOURUS TOUR		744 7200
M. TOUR MAIL		725 800
NUSA TOUR		285 122
ITOUR		261 105
MATAHARI KOREAN TOUR		703 479
MARIN TOUR		224 010
PDTOUR		763 845
PENJOR TOUR		727 800
P.B.B TOUR		288 999
U2 Bali Holiday TOUR		710 731
T.N.B TOUR		808 9000
UNION TOUR		745 4419
SUDINA TOUR		744 2121
SPIRIT TOUR		780 2340
KOREA TRAVER		756 899
V.I.P. 여행사		762 090
WORLD RESORT CENTER		778 218
WEDDING TOUR		745 3650
●식당		
그릴하우스	(0361)	710 374
꼬끼레스토랑		770 256
대장금(SIMPANG SIUR)		889 0870
대장금(SANUR)		918 1888
라리스		727 405
부가		805 1212
서울가든(부두굴)	(0362)	342 9220
한일관		727 250
인터넷셔널라운지		759 368

●서비스업

- 빌라, 호텔

BEVERLY HILLS VILLA	848 1800
BALI DIARY HOTEL	499 282
DREAM LAND VILLA	708 199
OCEAN BLUE BALI VILLA	776 700
MAN&WOMAN VILLA	847 6521
LAVENDER HOTEL	752 961
VILLA DOWNTOWN	736 464
VILLA NAMASTE	755 755
AISIS VILLA	862 8777

●기타서비스업

I.N.L	720 999
INKO CLUB	722 431
HALLO BALI	723 593
SIMPANG SIUR	761 313
AVENUE	762 327
AISIS (NUSADUA)	770 256
AISIS (SANUR)	287 257
COLAGEN BUTY SHOP	885 1770
CLUBBER	766 340
BALI FINE	852 8881
POLO SHOP(AIRPORT)	759 368
BALI TEGEHE AGUNG	298 643
CLEAN & GREEN	289 070
SUN JEWELLERY	761 537
SINAR MUTIARA BALI	462 061
BALI DEWATA	285 501
CHIPPENDALE FURNITURE	812 570
SAMMA	815 310
BALI PROPERTY CONSULTING	264 086
SHINY HAIRSHOP	766 304
카리스(특피전문백)	0811 998 1637

**반둥 (지역번호 022)**

반둥 아름다운교회	201 3184
	0813 2233 0119
반둥 반석교회	201 5022
한국인교회	201 4052

●식당

뉴캐슬식당	201 5007~8
명가레스토랑	200 7363
코리아하우스	203 1626
한국관	204 3069

●서비스업

뉴캐슬사우나	201 5007~8
반둥렌트카	0858-1111-4000
반둥한인부동산	0858-1111-4000
반둥컴퓨터	0821-2222-6000



# 긴급전화번호

경찰	POLICE (Polisi)	112
범죄 및 도난 신고		110
소방서 (화재신고)	FIRE BRIGADE (Dinas kebakaran)	113
응급차	AMBULANCE (Ambulan)	118 119
민간구급차 서비스	PRIVATE AMBULANCE SERVICES	(021)7506001 =International SOS (24시간대기)

## ■전화번호 안내

- 시내.....108  
Directory Service(City)
- 시 외.....105,100  
Directory Service(Suburbs)
- 국제전화.....001,008

## ■교통기관

- 수카르노 하타공항안내.....021)5505307/8/9  
Airport Information 550 5179
- 택시예약(블루버드클럽).....021)7917 1234  
(24시간 접수)
- 고속도로 정보.....801  
Toll Road
- 교통사고.....118, 021)527 5090  
Traffic Accidents
- 열차시간안내.....121  
Station Gambir  
Station Kota.....021)692 8515

## ■재인도네시아 한국인관련 주요기관

- 한국대사관.....021)2967 2555
- 영사과.....021)2967 2580
- 재인도네시아한인회.....021)521 2515
- 한인회 24시간 비상연락....0812 1960 308**

## ■항공사 안내

- 대한항공(시내).....021)521 2180  
(공항).....021)550 2389
- 가루다(Call Center).....021)2351 9999  
0804 1807 807
- 아시아나항공(시내).....021)5721381~3  
(공항).....021)5591 3229

## ■우편

- 중앙자카르타 우체국.....021)384 4188

## ■각종 고장 문의

- 전기고장 문의.....123
- 전화고장 문의.....147
- 수도고장 문의.....021)57986555

# 2017년 제1회 '적도문학상' 공모전 안내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와 한인포스트는 공동 주관으로 해외에서 한국문학의 맥을 잇고 발전시켜 나갈 우수한 작가를 발굴하고 후진을 양성하고자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한인과 만 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제 1회 적도문학상을 개최합니다.  
인생의 향기가 담긴 자신만의 글을 만나고 싶습니다.

## - 당신의 진솔한 삶의 이야기가 곧 문학이 됩니다 -

1. 공모부문 : 시, 수필, 소설, 희곡
2. 응모 대상 : 1. 인도네시아 및 동남아에 거주하는 모든 한인  
2. 만15세 이상 학생 및 청소년, 인도네시아 한국어학과 대학생 / 외국인  
3. 주 제 : 해외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이야기 / 외국인= 한국 이야기
3. 접수 기간 : 2017년 2월 10일~3월 25일 / 발표 : 2017년 4월 15일 예정  
★ 시상식은 4월 하순경 - 날짜는 추후공지 예정
4. 응모 방법 : ★ 시: 자유시 3편이상 ★ 수필: 2편(1편분량-A4용지11포인트 3쪽내외)  
★ 소설 및 희곡: 2편(1편 분량 - A4용지 11포인트 5쪽 내외)
5. 제출처 :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사무국

이메일: [hansastra17@gmail.com](mailto:hansastra17@gmail.com) 문의: +62-811-910-6697 / +62-811-969-1190

시상 종류	인원	시 상	시상 대상	시상 내역
대상(적도문학상)	1	한국문인협회 본부 이사장상	성인 1명	상장 및 상금 US1,000
최우수상	5	(1) 재인니한국대사상 (2) 아세안 대사상 (3) 재인니한인회장상	성인 및 학생 외국인포함 총5명	상장 및 부상
우수상	6	(1) 한인상공회의소회장상 (2) 한국문협인니지부장상 (3) 한인포스트 언론상 (4) 글로벌기업문학상	성인 및 학생, 외국인포함 총6명	상장 및 부상
특별상	4	(1) JKT한국국제학교장상 (2) 인니현지대학 총장상	성인및학생부문 각2명-총4명	상장 및 부상
장려상	6	한국문협 인니지부상	성인및학생부문 각3명-총6명	상장 및 부상

### ★ 대우 및 특전 :

대상(적도문학상) 당선자는 작가등단이 인정되며, 최우수상 이상 당선자도 한국 문단에 등단의 기회가 부여됩니다.

당선작은 매년 4월에 발행되는<인도네시아문학>에 게재되며 수상자는 한국문협 인니지부 정회원으로 가입됩니다.

적도문학상 각 부문 학생 수상자는 한국대학입시에 반영되는 한국문협 인니지부 수상증명서가 발행됩니다.

★ 심사 규정 : 심사위원은 한국문단에 등단한 엄선한 작가들로 구성되어 당선작 발표와 함께 심사위원이 공표됩니다.

### ★ 주의사항 :

1. 응모작품은 지면 및 사이버공간에 발표된 적이 없는 순수창작물이어야 함.
2. 표절 및 저작권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선을 취소하며 법적책임은 응모자에게 있음.
3. 응모작의 맨 앞에 이름, 거주지, 생년월일과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4. 응모작품은 마감기일을 엄수하며 작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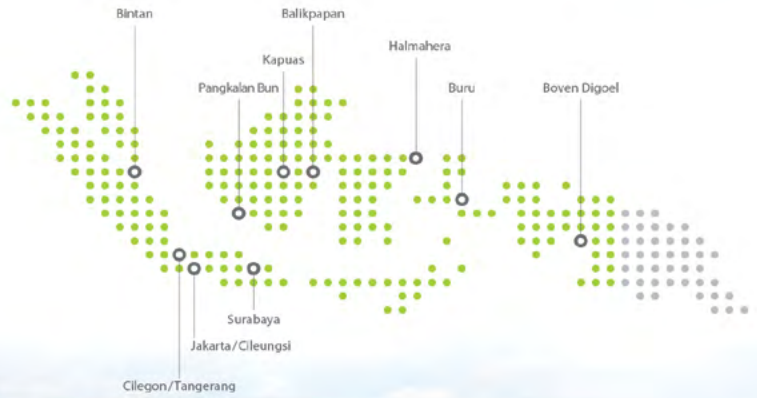
주관



한국문인협회 인도네시아지부

**HanInPost**  
한인포스트

# KORINDO Plants the Green



## 인류의 지속가능성, 녹색경영에서 해법을 찾다!

코린도의 주력사업인 천연림경영, 조림, 팜오일, 목가공업 등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친환경사업을 통해 지구와 인류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Forestry Management
- Timber Plantation
- Oil Palm Plantation
- Rubber Plantation
- Plywood
- Plant
- Special Vehicle
- Battery Separator
- Coal & Limestone Mining
- Finance
- Total Logistics
- Shipping Division
- Engineering & Construction
- International Business Div.
- Real Estate Management
- Rest area & Gas station
- SG Consulting
- Wind Tower
- Newsprint & Printing / Writing Paper
- Wood Chip/ Veneer/ Sawn Timber/ Wood Pellet

# No.1 RETAILER IN ASIA

한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는 글로벌 유통기업, **롯데마트**  
인도네시아에서도 롯데마트는 대한민국 유통의 자부심이 되겠습니다.



## HYPERMARKET ( 14 STORES )

JAKARTA: • Gandaria City (021) 29053060 • Ratu Plaza (021) 7394555 • Kelapa Gading (021) 45855111 • Mal Kuningan City (021) 304808888 • Fatmawati (021) 7591 0837 • LOTTE Mall Taman Surya (021) 29501300 | TANGERANG: LOTTE Mall Bintaro (021) 29310777 | CIMONE: Cimone City Mall (021) 29170235 | BEKASI: Mal Bekasi Junction (021) 88348885/88344681 | BANDUNG: Mal FestivalCityLink (022) 6128 500 | MAKASSAR: Mal Panakkukang (0411) 423445 | MEDAN: Mal Centre Point (061) 80501303 | SOLO: Mal The Park (0271) 7891250 | SURABAYA: Marvel City (031) 99440510

## WHOLESALE ( 27 STORES )

JAKARTA: • Pasar Rebo (021) 8404090 • Kelapa Gading (021) 4523811 • Meruya (021) 5857101 | BEKASI: Bekasi (021) 82428818 • Cibitung (021) 8980678 • Cikarang (021) 89101018 | TANGERANG: • Alam Sutera (021) 5399660-61 • Ciputat (021) 74700140 • Jatake (021) 29329950 | SERANG (0254) 8241945 | BOGOR (0251) 7564700 | BANDUNG (022) 7503570 | CIREBON (0231) 8333024 | TASIKMALAYA (0265) 7293333 | SEMARANG (024) 6733535 | SOLO (0271) 740319 | YOGYAKARTA (0274) 4462616 | SURABAYA: • Mastrip (0821) 32537174 • Sidoarjo (031) 8532244 | BALI (0361) 723222 | MEDAN (061) 8470010 | PEKANBARU (0761) 572215 | PALEMBANG (0711) 379623 | BANJARMASIN (0511) 3265450 | BALIKPAPAN (0542) 8879523 | MAKASSAR (0411) 832813 | BATAM (0778) 4803800

## SUPERMARKET ( 2 STORES )

JAKARTA: La Codefina Kemang (021) 7182889 | BANDUNG: Bandung Electronic Center (022) 20510044